

# HUGOEMATERS

ISSUE #3

NEW ALBUMS PLANGERS LATLUGA THE DREAM UBER MISFITS DRESSINGROOM KING SOUTH G CORE  
FREUDIAN THE SORROW OF YOUNG ADHD YUNWHAY ANTIVANDALISM (1) RAMPAGE NOWITZKI JOGEUMTONG  
EDITORS' PICK [COSMOS] SMILE ANTHEM O. PRUNED! KISS OF LIFE HIPHOP NEVER DIE GET UP FEATURED  
CULTURE SURFIN' ZOOMINTERVIEW W/ "DOUBLECROSS MUSASHI" SON SIMBA LECRITIC

KHL





08.07



---

## #01 NEW ALBUMS

7월 발매 신보 6개 & 심층리뷰 5개

## #02 NOWIZTKI & 저금통

빈지노의 노비츠키와 이센스의 저금통 심층 리뷰

## #03 EDITORS' PICK

에디터 선정 6개의 앨범과 트랙들

## #04 FEATURED

래퍼와 프로듀서의 차이

## #05 ZOOMTERVIEW

Zoomterview w/ "DOUBLECROSS MUSASHI"  
Son Simba

## #06 LECRI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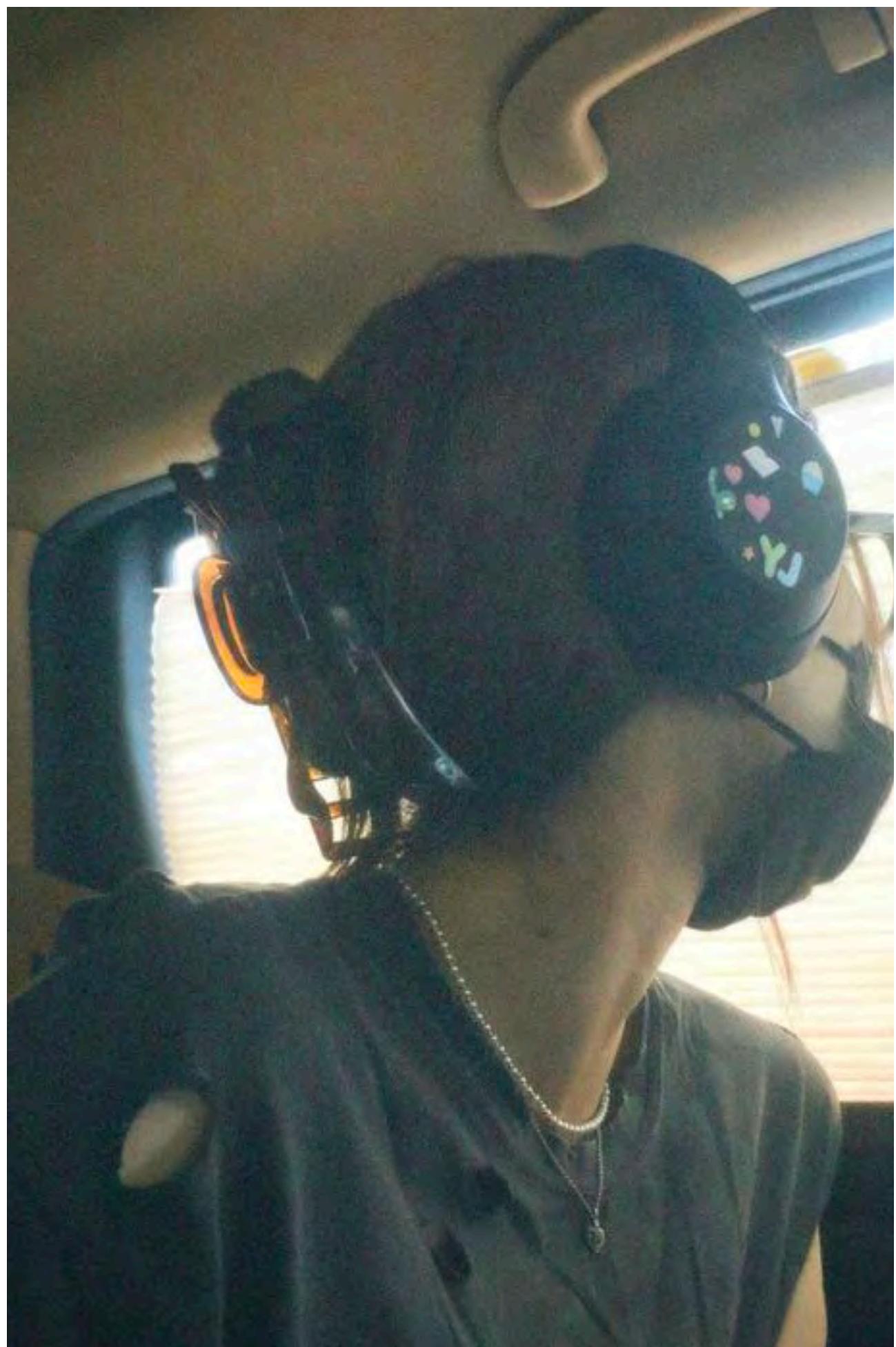
Lecritic by Hiphople 예림

---

#01

new albums

#01



#01

new albums

#01



## Plangers

Yescoba, HEO DANIEL, Kimhojun  
23.06.25

by writersglock

몽환은 이제 그의 체취같은 것이다. 씨잼의 역작 <킁>에서 조력자로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Yescoba는 어느덧 누구도 쉬이 침범하지 못할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다. 공허와 쾌락, 몽환이나 환상 따위 것들을 알고 싶은가? 그 깊고 짙은 바다가 궁금한가? 그런 당신에게는 Yescoba와 허다니엘의 <Plangers>가 제격이다. 이 앨범의 재생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거는 순간, Yescoba와 허다니엘이 습기 가득한 어느 도시의 새벽으로 당신을 태우고 달려간다. 만약 그 짧은 여행에서 매력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쉽게 그 차에서 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정성스레 빛어놓은 네온 색의 세상은 위험하도록 아름답기 때문이다.



## 꿈 우버 라틀루가

이현우  
23.06.30

by Devi Ken

깊은 우울 속에서 허우적대던 한 예술가는 자신을 꿈으로 데려가줄 우버, 라틀루가를 만나게 되었다. 6월 30일 발매된 이현우의 믹스테잎 <꿈 우버 라틀루가>는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는 상황을 담아낸 "비상등"으로 시작된다. 2번 트랙이자 타이틀곡인 "서울ㄴ 드림'에서부터 7번 트랙 "Skit: The Words of Latluga"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주변인 물과의 갈등을 겪으며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누구에게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제삼자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말하는 모습은 때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 또한 이 과정에 있는 한 사람으로써 어쩌면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갈증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라틀루가와 함께 가게 될 이현우의 꿈을 기다린다.



## Misfits

Ghvstclub

23.07.05

by 자이즈

고스트클럽의 데뷔작 <LOVE EXPOSURE>가 지녔던 기괴한 매력은 장르팬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후속작 <Misfits> 역시 마찬가지다. 진중한 분위기로 짓누른 작품의 전체적인 마감은 전작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며 좀 더 깔끔하게 정돈된 인상이지만 고스트클럽은 여전히 마음 속 깃들어 있는 왜곡된 감정들을 솔직하게 토해내고 있다. 중후반부 선보이는 특유의 이모(Emo)감성 가득한 싱잉과 매력적인 헥메이킹은 건재하다. 나아가 한 층 발전한 그의 랩 퍼포먼스 역시 주목할 만하다. 첫 트랙 "Ghvstrider"부터 "Yara"까지 이어지는 랩의 디자인은 한 층 타이트해졌고, 머금고 있는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청자들의 몰입감을 더한다. <Misfits>는 <LOVE EXPOSURE>와는 다른 방향으로 고스트클럽의 음악에 깃든 매력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나아가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 탈의실

SPARKY

23.07.21

by loding

탈의실은 옷을 갈아입을 때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사람에게 있어 가장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도 하다. 삶의 무게를 옷으로 치환한 스파키의 <탈의실>도 그 예외는 아니다. 본작에서 스파키는 주로 선보인 팝 계열의 가벼운 사운드에서 나아가 재즈, 락 등 더욱 다양한 장르와 함께 무거움과 발랄함을 오가는 사운드로 새 옷가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 Sonya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 사건들로 빛어진 압박감과 우울함, 그리고 그간 쌓여진 분노의 표출까지, 그녀의 음악에 있어 상상도 못할 날 것 그대로의 감정까지 담아내 그간 감춘 상처투성이의 나체의 모습도 드러냈다.



## KING SOUTH G CORE

KING SOUTH G

23.07.09

by 자이즈

킹 싸우스 쥐가 선보이는 작품들은 매번 새롭다. 세 번째 스튜디오 앨범 <KING SOUTH G CORE> 역시 지난작들과 차별화되는 사운드 속 특유의 과격한 테이스트가 넘실거린다. 전작까지 그의 또 다른 직업이자 아이덴티티로서 활용된 배달기사, 그리고 오토바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컨셉과 주제로 이야기를 꾸려나간다. 직접 빚어낸 전자음 가득한 프로덕션은 쉴 새 없이 격변하며 청자들이 가상세계와 현실을 넘나들게끔 만든다. 대부분의 트랙이 3분을 넘지 않는 빠른 분위기 전환 속 날카로운 톤으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킹 싸우스 쥐의 표독한 랩에는 거침없는 욕설과 발언이 가득하다. 여기서 느껴지는 강렬함과 카타르시스가 청자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있다. 킹 싸우스 쥐의 끝을 모르는 과격함과 음악적 스펙트럼의 합이 맛있게 어우러진 작품이다.



## Freudian

Ambid Jack

23.07.22

by 악귀불파워럽

VMC는 과거의 이름이 됐지만, 멤버들의 활동은 도리어 활발해졌다. 특히 프레디 카소와 큐엠은 협업 프로젝트들을 통해 왕성히 활동해왔고, 이제는 '나즈카 레코즈'라는 레이블까지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레이블의 첫 타자인 앰비드 책은 구본겸 등이 소속된 마이티 링스의 일원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동료들과는 사뭇 다른, 네오 블루 뮤지션의 신고전적 흐름을 받아들였다. 이를 위해 프레디 카소가 다시 한번 높은 월리티의 비트들을 주조해 냈고, 그 위로 앰비드 책의 무겁고도 진솔한 퍼포먼스가 더해져 시너지를 냈다. 황세현 등 크루의 동료들부터 큐엠, 딥플로우 등 블루 베테랑까지 아우르는 협업에서 비롯된 혈기와 고전미가 더해진 파괴력도 일품이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아티스트 지망생의 고뇌 역시 느껴지는 매력적인 앨범이다.



## 젊은 ADHD의 슬픔

1. 에이리언 정신과
2. 남들과 조금 다른 아이
3. 콘서타
4. My little pony
5. 죠부 투파키
6. 정신과의 담선생님 (Interlude)
7. 로보토미
8. 나를 혼자 두지 마
9. 드라이클리닝 (feat. CuRvY)
10. 젊은 ADHD의 슬픔
11. Soom

# 젊은 ADHD의 슬픔

CHOIYUDAM 23.06.28

자기 경험을 풀어내는 앨범은 힙합에서 지금까지 자주 나왔고, 그 뒤로도 자주 나올 것이다. 그 가운데 최유담의 정규 1집인 이름부터 생소한 <젊은 ADHD의 슬픔>도 그런 앨범이다.

앨범의 제목은 작가 정지음이 낸 동명의 책 <젊은 ADHD의 슬픔>과 제목을 같이한다. 어릴 적부터 ADHD를 앓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남들과 조금 다른 아이부터 Soom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겪은 일화부터 감상까지, 자기혐오와 우울함 등 자신이 겪은 여러 일들과 감정을 설명한다. 유기성과는 별개로 트랙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감정에 발을 맞춘 혼란스러운 프로덕션은 주제인 ADHD와 맞물려있다.

이 부분을 포함해, <젊은 ADHD의 슬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프로덕션이다. 어쿠스틱 기타를 위시한 여러 기타 사운드를 담으며 힙합 내부보단 외부의 사운드를 끌어왔다. 특히, 록 소스를 앨범의 기조로 깔아놓아, 마치 록 앨범에 랩이 가미 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일례로, '드라이클리닝'은 절제된 가사를 기저로 두고 뒤에 일렉기타로 여백을 두는 방식을 차용하여 효과적으로 감성을 연출했다.

또한, 작사법도 기존의 힙합적인 면모를 거부한다. 주제를 전달하는 일면에서 컨셔스 힙합 (Conscious hiphop)의 클리셰적인 법칙을 내세울 법 하지만, 명확한 주제 아래 추상적인 표현과 절제된 단어의 사용에서 힙합의 작사법과 큰 차이를 두었다.

인상적인 프로덕션과 반대로 랩은 꽤 안정적인 톤과 박자감을 위주로 프로덕션과 거부감 없이 어우러진다. 장난기 섞인 하이톤 목소리와 뱉는 느낌에서는 언뜻 소코도모가 떠오르기도 한다. 다만, 기초적인 랩에서 조금 더 나아가 랩의 감상을 한층 더 올려 힙합 앨범의 면모를 보였다면, 그리고 추상적인 표현보다 더욱 구체적인 일화를 채워 몰입도를 올렸다면 어땠을까 싶은 일말의 아쉬움이 듦다.

물론, 이런저런 개인적인 아쉬움을 뒤로하고 나면 높은 수준의 프로덕션과 생소한 플롯을 효과적으로 섞어낸 앨범이 남는다. 최유담의 1집 <젊은 ADHD의 슬픔>은 조금 더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 
1. Lost In 2. Permanant **3. Carpe Diem (feat. SILKYBOIS) 4. GOAT** 5. Mistakes (Never Looking Back) 6. TALK! TALK! 7. SCREAM 8. Prophecies 9. BANG & SPIT (feat. Kid Milli) 10. BRING SOME MORE 11. Ibiza 12. Running Out Of Time



YUNHWAY 23.06.30

2018년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 "Find A New Lover", "Long Long Time", "Liquor"를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 들어도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세련된 느낌을 주는 프로덕션과 몽환적인 비트 위에 부드럽게 랩과 싱잉을 갈아타는 모습이 그때 당시 흔하지 않아서 참신함을 안겨줬다. 그녀와 릴 체리가 함께한 "Rubber Duck"을 빼놓을 수 없는데 당시 한국에 없던 독특한 플로우를 선보이며 많은 힙합 팬들의 관심을 샀다. 최근 5~6년 사이에 많은 여성 래퍼들이 생겼지만, 2018년까지만 해도 음악 손꼽히게 잘 하는 여성 래퍼는 보기 드물었고 독보적인 인물들로 재키와이, 윤훼이, 유시온, 릴 체리 등이 돌보였다.

5년이란 긴 시간 만에 낸 정규 때문일까 자신의 랩 네임과 같은 <YUNHWAY>를 들고 오며, 그 동안의 쏟은 노력과 진중성을 보여주려 한 것 같다. 자신의 이름을 앨범명으로 만든 것처럼 '그녀 다운 음악'을 만들었다. 큰 축에서 보면 래퍼와 알앤비 싱어이지만, 그녀의 탁월한 프로듀싱 능력은 씬 내에서 압도적 위치를 자랑했다. 2010년대 후반 당시 흔히 '싸클 감성'이라는 당시 트렌드를 따르되, 독특한 향을 듬뿍 담으며 자신만의 장르를 만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EP <Instant>로 이어진다. 다소 과감한 전자음악 사운드와 그 사이 강렬한 베이스, 분위기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은 가히 혁명이었다.

난 위 EP <Instant>의 연장선이 이번 앨범 <YUNHWAY>이라고 생각한다. 도발적이고 강렬한 사운드는 가져오면서 옛 '싸클 감성'을 과감히 버리며 사운드 자체는 더 간단명료하게 정리된다. 새로운 것들도 채택하게 되는데 브레이크 비트, 드럼 앤 베이스, 저지 클럽, 얼터너티브 알앤비, 트랩을 하나로 접목하게 되며 단순 힙합으로 볼 수 없는 조화로운 앨범이 됐다. 또 실키 보이즈, 키드 밀리를 주객전도가 되지 않는 한에서 적절히 사용하며 유기성을 잡아줬다. 부드러운 느낌의 "GOAT"와 "Ibiza" 도발적인 "Carpe Diem", "SCREAM", "Bring Some More" 전자음악과 힙합을 적절히 결합한 "Bang & Spit", "Prophecies"까지 하나의 앨범 안에 많은 실험적 요소를 집어넣었고 퀄리티도 뛰어났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그녀의 데뷔부터 자작된 탁월한 프로듀싱 능력에 비해 피지컬적인 면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점인데 앨범의 사운드가 너무 뛰어나서 그녀의 보컬과 랩이 따라가지 못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아직도 상당하다. 다른 문제로 주목된 점은 가사적인 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왜냐면 이 앨범 자체가 사운드 자체에 치중한 앨범이라 가사를 중점으로 판단해야 되는 앨범이 아니라 사운드를 중점으로 판단해야 되는 앨범이라고 본다. 전체적으로 윤훼이의 색채는 명료해졌으며 큰 발전을 이뤄낸 거 같다. 그녀의 음악을 듣다 보면 과연 윤훼이만큼 한국에서 프로듀싱을 잘 하는 아티스트가 있을까 싶다.



1. 허걱 (feat. 노윤하)
2. Horror mode
- 3. Hit me up follow (feat. BILL STAX)**
4. 많은 Guap
5. Maindish (feat. Choo, YLN Foreign)
6. Stutter
7. 힙합바지
8. Pull up to the block (feat. oygli, Paloalto)
- 9. 항소고집 (feat. 허성현)**
- 10. 미친새끼**
11. They know I'm the don

# RAMPAGE

Mac Kidd 23.07.06

클라우드 랩을 할거만 같은 얇은 톤, 이러한 예상을 뒤집는 강렬한 랩 스타일, 그리고 단순무식하게 반복되는 라임까지, 맥키드는 이러한 상반된 요소에서 오는 의외에 타격감 덕에 자연스레 유니크한 개성을 가진 래퍼로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그가 한동안 피처링 활동과 소수의 싱글 발매, 쇼미 출연 등으로 간간이 모습을 보이던 중 무려 정규 앨범으로 돌아왔다. 그것도 '광란'을 뜻하는 <RAMPAGE>란 단어를 타이틀로 내건 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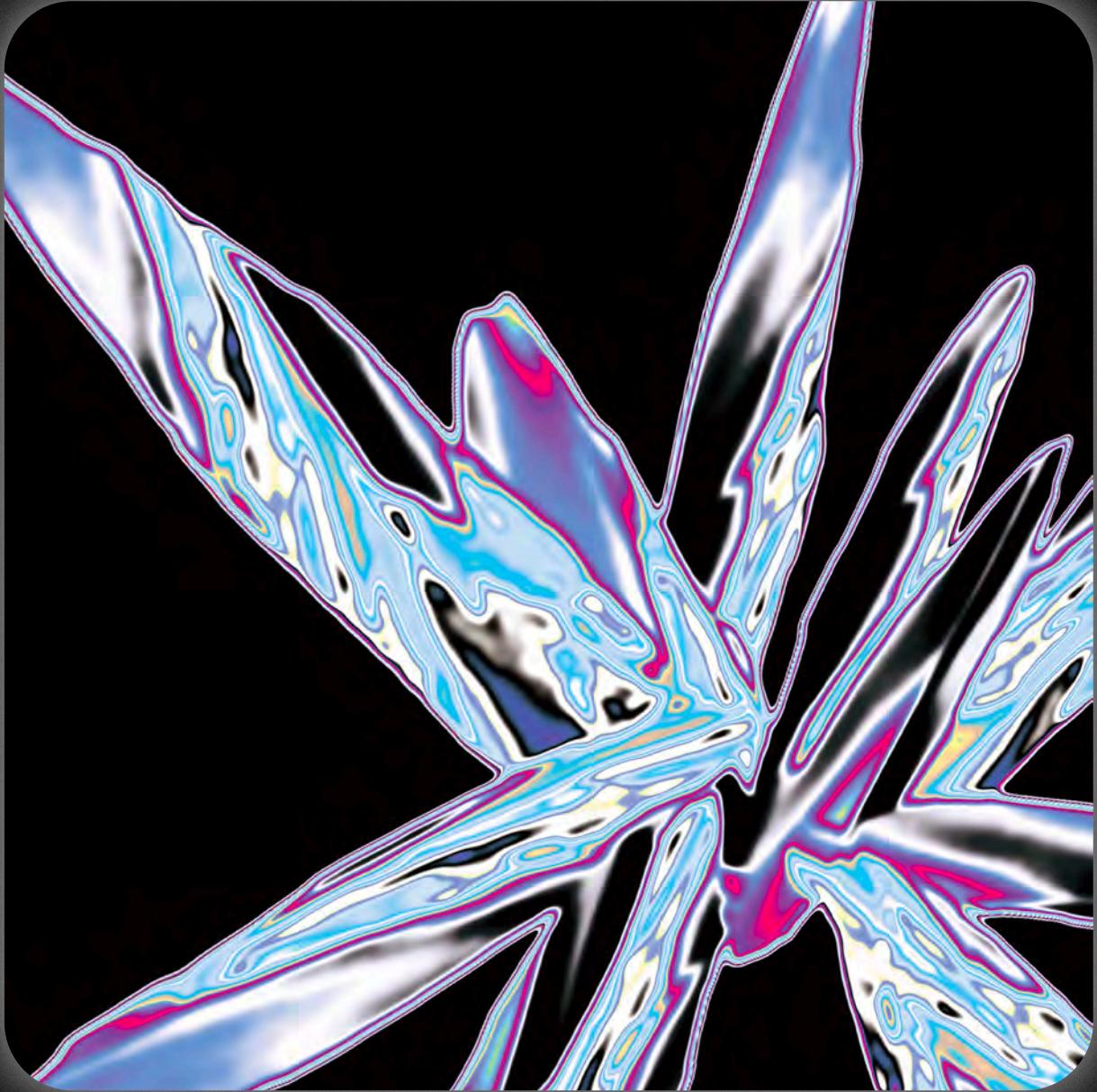
<RAMPAGE>는 맥키드의 랩 퍼포먼스가 중점인 미니멀리즘 트랩 장르의 앨범이다. 랩이 중심이란 점에서 그의 전작인 <Death Peace Smile>나 <TrapBox>가 연상될 것이다. 허나 본 작은 착 가라앉는 사운드로 스산한 무드를 안겨준 "허걱"이나 느릿한 루프의 절제된 사운드에서 오는 긴장감을 선보인 "Maindish" 같이 초반부부터 전작과는 다른 어두운 분위기를 가진 Savend!의 프로듀싱으로 전작들과 차별화된 색깔을 드러냈다.

맥키드의 랩 또한 전작보다 타격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전반적으로 톤이 많이 차분해졌으며 전작에선 하나씩은 있던 멜로디컬한 플로우 사용을 배제한 대신 발음의 뭉개기와 강조를 적절히 사용한 모습도 보여줬다. 또한 적극적인 서브 라임 활용이나 더욱 짧아진 라임 배치 간격, 자연스러운 메인 라임 변경 등 더욱 발전된 라임 활용도 눈에 띈 요소였다.

그 외에도 노윤하, 빌스택스 같이 트랩과 잘 어울리면서 맥키드와는 다른 유려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래퍼들을 피처링으로 활용해 적절한 활력을 해준 것도 그의 탁월한 센스가 보이는 지점이다.

이후 'Stunner'를 기점으로 앨범은 요란한 신스음이 주도하는 속도감 있는 비트들이 주를 이루는 공격적인 분위기로 전환된다. 이에 맞춰 맥키드의 랩도 전보다 날카롭게 진행되었으며, 그 중 "Pull up to the block"과 "황소고집"에서는 피처링으로 참여한 oygli, 팔로알토 그리고 허성현과 함께 서로 다른 랩 스타일로 임팩트 있는 벌스들을, 그리고 "미친새끼"에서는 중독성 있는 혹과 칠진 래핑을 선보이면서 앨범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Death Peace Smile>와 <TrapBox>를 거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맥키드는 어느덧 특별한 개성을 지닌 루키에서 '쇼미가 제대로 담지 못한' 스타일의 캐릭터를 노련미와 함께 앨범으로 제대로 표현한 아티스트가 되었다. 그만큼 <RAMPAGE>는 맥키드에 커리어 중 가장 완성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의 향후 방향성에 중요한 밑바탕이 될 앨범이다.



- 
1. Despite
  2. Florence
  3. To. Joseph
  4. Heavy
  - 5. Certii (feat. Kid Milli)**
  6. Who Can Stop Me (feat. Cue Choi)
  7. PP
  8. Bat (feat. Swings)
  - 9. Skin-Abstract**
  10. Culture
  11. Urban East
  12. hotel interlude.
  13. 1805
  14. Out Of Time
  15. Off The
  16. Moonlight
  17. Rainbowroad (feat. wnsday)
  18. Through The Night (feat. DUT2)
  19. FEDEX
  20. Prodigal Son

# ANTIVANDALISM

OKASHII 23.07.07

최근 ap alchemy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 이들은 ap alchemy의 첫 컴필레이션 앨범에서 범상치 않은 프로듀싱으로 리스너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swings의 예고작인 <upgrade 5>의 전담 프로듀서를 맡은 사실까지 알려지며 현재 ap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공고히 했다. 지금 한국힙합의 새로운 갈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들은 바로 OKASHII이다.

<ANTIVANDALISM>에는 이들이 앞으로 그려나갈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표현되어있다. 앨범을 열어주는 "Despite"과 "Florence"는 층이 두꺼운 보이스 샘플과 오르간을 활용하여 마치 가스펠을 듣는 듯하며, 청자는 이들의 안내에 따라 새로운 공간으로 분리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To. Joseph"에서부터 앨범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변모하는데, 전자적 사운드들이 더해져 이들 특유의 '야마' 가득한 곡들이 쏟아진다. 특히 앨범의 매인 타이틀인 "Certii(feat. Kid Milli)"는 레이싱을 연상시키는 속도감 있는 비트를 통해 이들이 추구하는 사운드의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준다. 이후 "Urban East"에서 분위기는 다시 한 번 전환된다. Chill한 분위기의 비트와 짜릿조리는 듯한 랩은 지금까지 달려오던 분위기를 가라앉히며 분기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후 이어지는 트랙들은 보다 팝적인 분위기에 싱랩을 가미하여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특히 "Rainbowroad(feat. wnsday)"부터 "FEDEX"까지 이어지는 라인은 세심한 편곡으로 상당한 청각적 쾌감을 제공한다. 앨범의 마지막 곡인 "Prodigal son"은 멤버인 Jeffrey White의 솔로곡인데, 예상치 못한 밴드 사운드로 분위기를 전환하며 자신들의 음악적 역량을 상기시킨 듯한 느낌이다. 50분 가까이 되는 꽤 긴 앨범이지만 이런 포인트들 덕분에 지루할 틈 없이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면 퍼포먼스로서의 랩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OKASHII 멤버들의 랩은 대부분 멤블이나 멜로디랩에 가깝고, 90% 이상이 영어 가사라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의도가 있겠지만, 피쳐링진 이외에 한국어를 찾기 어려운 것은 한국 힙합 리스너로서 꽤나 아쉽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이들은 '사운드' 자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며, 자신들의 목소리도 하나의 샘플처럼 운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청각적 쾌감을 일차적 목표로 둠으로써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 전략이었을 것이며, 그 관점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OKASHII의 첫 발걸음은 힙합씬에 인상적인 울림을 주었다. 앞으로 이들이 그려 나갈 미래를 기대하며, 이들처럼 재능 있는 젊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해본다.



1. 구운듯한 얼굴이 너의 모티프
2. 목에게
3. 따갑고 부끄러워지는 것
4. 수풀 연못 색 치마
5. 그늘  
덮개
6. 동물원
7. 허영 깊은 분위기에 실오라기 같은 눈을 가진 자
8. 허무한 허무함의 패턴

# 꽤 많은 수의 촉수 돌기

youra 23.07.07

여운과 연민. 이 두 단어를 보면 분명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좋은 영화를 보고 나서 느꼈던 여운이나 힘든 사람을 보며 느끼는 연민 등. 하지만 최근 그와 비슷한 감정을 언제 느꼈는지를 기억해보면 쉽사리 떠오르지 않는다. 아마 사회가 '상실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그 감정들은 우리 삶의 한순간으로 남아 살아가는 것에 있어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음을 분명하다. 이 앨범의 단초가 된 것도 유라가 꿈에서 빈, 할머니의 택시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그녀가 느낀 여운이 이 앨범을 만드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렇게 유라가 소중하게 느끼게 된 일상 속 여운과 연민, 향기가 담겨 있는 앨범이 <꽤 많은 수의 촉수 돌기>라고 할 수 있다.

<꽤 많은 수의 촉수 돌기>의 8트랙은 상호간의 유기성을 지니고 있기보다는 각각의 트랙이 일상의 한순간들을 자세히 표현한 쪽에 가깝다. 따라서 이 앨범은 하나의 스토리가 아닌 8개의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유라의 기억과 경험 등에서 우러나온 가사들이기에 그 의미를 자세히 해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만, 그녀의 이야기 속 일부분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무엇들과 많이 닮아 있다는 점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목에게>의 사람과의 소통 방식 속에서 느끼는 상처와 공허, <따갑고 부끄러워지는 것>의 결국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는 것 같은 공허감, <동물원>에서의 갇혀 있는 동물에 대한 연민 등이 그렇다.

이 앨범의 유라의 보컬은 일관적으로 잔잔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가사의 전달에 집중한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프로듀싱을 통해 다소 단조로울 수 있는 보컬의 분위기를 때로는 경쾌하고 때로는 긴장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한다. 비록 비슷한 사운드별로 곡이 모여 있거나 각 곡이 이어지는 등의 장치는 없기 때문에 유기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유라가 표현하고자 했던 '무언가'에 가장 잘 맞는 프로듀싱을 선택하여 곡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유라가 표현한 여운과 연민이라는 감정 속에는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네의 모습도 잠시 비쳤으며, 그녀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던 허무함, 공허함 등의 감정도 깊게 담겨 있다. 가사 속 의미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영국의 밴드 'Oasis'가 본인들의 곡인 <Champagne Supernova>의 가사가 난해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가사는 완벽한 의미를 알 수 없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각자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그만'이라고 말 한 것처럼, 자기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듣는다면 분명 나름의 의미가 생겨날 것이고, 그것이 나만의 정답이 될 것이다. 이 앨범을 들으며 나만의 여운과 연민은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독특한 보이스와 잘 짜여진 프로듀싱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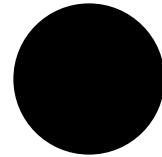
#02

editors' pick

#02

NOWITZKI

Beenzino



**JEOGEUMTONG**

**E SENS**

#02

editors' pick

#02





NOWITZKI

23.07.03



12

16.05.31



Lifes Like

10.10.26

# ROAD TO NOWITZKI

by 쟈이즈

## 자유를 사랑하는 예술가 빈지노의 NOWITZKI를 향한 여정

### 재지팩트 <Lifes Like> (10.10.26)

오버클래스의 컴필레이션 앨범 <Collage 2>의 피처링으로 첫 등장, 이후 피스쿨의 <Daily Apartment> 호스트 뮤지션으로 참여하여 팬들의 이목을 끌었던 신인 빈지노. 프로듀서 시미 트와이스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재지팩트의 <Lifes Like>는 젊고 패기 넘치는 두 뮤지션의 청춘과 다양한 상념이 깃들어 있다. 20대 초반의 시기를 겪는 청년들이라면 공감할 법한 이야기들이 작품을 수놓지만 빈지노의 독특한 플로우의 랩과 시미 트와이스의 샘플링 프로덕션은 보편적 주제들을 특별하게 돋보이도록 만드는 독특한 감흥을 그려낸다. 열정적이지만 그저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채 차분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Lifes Like>는 재지팩트가 2010년대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신인이었다는 것을 되새기게 만든다.

### <12> (16.05.31)

<Lifes Like>의 호평 속 뒤이어 발표한 솔로 EP <24:26>은 빈지노가 솔로 아티스트로서 단단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나아가 이후 발표한 싱글 "Dali, Van, Picasso"의 빼어난 퀄리티와 이에 호응하는 듯한 음원차트 석권은 장르씬 자체의 판도를 뒤흔들 정도의 파급력이었다. 이 흐름을 타고 나온 첫 스튜디오 앨범 <12>는 빈지노의 예술적 감성과 이에 빼어 나온 도전적인 시도가 어우러져 복합적인 감상을 이끌어내는 작품이 되었다. '시계를 못 본 체하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Time Travel"의 호기로운 메세지처럼 빈지노는 이때부터 시류에 얹매이지 않는 자기만의 음악세계를 만들어나가고 있었다.

### <NOWITZKI> (23.07.03)

젊음과 청춘을 찬미하던 한 청년의 세계가 격변하였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사랑하는 이의 배우자가 되었으며, 새로운 음악적 보금자리에서 다음 삶의 챕터를 이어나간다. 두 번째 스튜디오 앨범 <NOWITZKI>는 이런 과거 경험들이 모두 예술적 영감이 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단순히 일상을 전시할 뿐이다. 하지만 이 안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순간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가 언제나 추구했던 자유로움이 묻어난다. 삶의 모든 것이 변했고 음악을 통해 다루는 이야기 역시 달라졌지만 그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의 방향은 변함없다. 나의 삶 자체가 예술이다. 빈지노는 어떠한 과잉 없이 이를 담백하게 드러낼 뿐이다.



1. Stinky Kiss (Intro)
2. Monet
3. 침대에서/막걸리
- 4. 여행 Again (feat. Cautious Clay)**
5. Dope As (Interlude)
6. Coca Cola Red (feat. oygli)
7. 990 (feat. 김심야)
8. Lemon
9. 바보같이 (feat. Y2K92)
10. Trippy (feat. Lance Skiiwalker)
11. Crime (feat. 백현진, 250)
12. Camp
13. Sanso (Interlude)
14. Change
15. 단 하루
16. Sandman
- 17. Radio**
18. Gym

# NOWITZKI

Beenzino 23.07.03

우리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와 음악에도 시간은 흐른다. 청춘을 대변하는 음악으로 사랑 받은 빈지노도 마찬가지다. <12> 이후 7년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군대와 새 레이블, 거대한 브랜드가 된 IAB Studio, 무엇보다 소중한 아내. 이제 그에게선 청춘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만의 예술은 여전하다. 오히려 긴 시간 끝에 더욱 노련해졌다. <NOWITZKI>는 그 예술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기장이다.

빈지노는 여유로운 탑스타이자 예술가가 되었다. 그러나 콤플렉스, 불안, 부담스러운 시선은 언제나 그를 따라다닌다. 부정적인 상념들로 한껏 우울해진 자신을 군대에 넣어버리자,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게 된다. 제대 후, 상념은 빠르게 사라진다. 누구보다 아내의 도움이 컸을 것이다. 언제나 아내가 옆에 있을텐데 무엇이 그를 우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편안해진 빈지노가 진정한 휴가를 떠나며 앨범은 마무리된다.

사실 <Life's Like> 시절이 더 친근할 뿐, 빈지노의 음악은 언제나 그의 현재를 노래했다. 본작도 이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전작들보다 불친절한 가사가 보인다. 표현의 시점을 바꿔대며 4 차원스러운, 이전엔 보기 힘들었던 독특한 감성의 가사까지 등장한다. 허나 그의 뛰어난 비유와 비주얼라이징은 여전히 유효하다. 의미 전달보다 자신만의 표현에 집중했을뿐, 그가 여전히 국내 힙합의 손꼽히는 작사가임을 증명한다.

퍼포먼스 역량도 여전하다. 자주 등장하는 난해한 비트들을 완벽히 해석해 소화한다. 빈지노가 꾀한 변화도 돋보인다. 전작과 어딘가 다른 멜로디메이킹부터 새로운 스타일의 랩, 후반부의 피치 조절. 이 변화들과 독특한 가사가 만드는 케미는 상당하다. 특히 톤 변화와 간결한 가사로 단번에 강아지를 연상시킨 "Change"의 혹은 '성빈 2.0'이라는 표현이 잘 와닿는 대목이다.

프로덕션적으로도 전작의 빈지노를 완전히 탈피한다. 전작과 달리 국내부터 해외까지 다양한 프로듀서진을 자랑한다. 비트들은 모두 얼터너티브, 사이키델릭한 면모를 이어간다. 기존의 음악의 극적인 변화다. 사이키델릭 기타가 큰 포인트로 작용하는 "침대에서/막걸리"와 백현진과 250의 참여로 빈 구석 없는 사운드를 내는 "Crime"은 본작의 빛나는 순간이다.

빈지노의 이야기는 우리와 멀어진지 오래다. 공감의 대상에서 동경의 대상이 된 그의 삶은 여러 변화를 겪었고, <NOWITZKI>에선 여러 의미로 가장 사적인 영역에 도착했다. 그러나 예술은 빛을 잊지 않는다. 긴 시간에도 음악은 여전히 감흥을 주고 이야기도 매력적이다. 시간이 흐를 수록 쌓이는 감각을 더욱 노련하게 작품에 담아내는 역량이 돋보인 작품이다.

#c3cada



#bb9473

## #6b723c

<NOWITZKI>의 앨범 커버는 공개 직후부터 리스너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익숙하지 않은 인디 감성,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스테파니의 시선 등이 그 이유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 앨범을 청취한 리스너들을 대상으로 차츰 긍정적인 의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부담스러움을 차치하고, 인간 임성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스테파니의 사진은 이 앨범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10년도 더 전에 촬영하여 껴있는 노이즈로 인해 느껴지는 Lo-fi하고 빈티지한 감성, 꾸미지 않은 듯한 내추럴한 무드, 사진을 구성하는 낮은 채도의 색들은 오래전의 추억으로 감상자들을 데려가주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특히, 빈지노가 스테파니와 함께 하면서 경험했을 감정들과 그에 대한 향수가, 이 앨범을 듣는 리스너들에게도 피어오른다. 이동진 평론가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한줄평을 빌려오자면, 우리가 지나온 적 없는 시간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느끼게 해주는 앨범 커버다. 비록 앨범 제목을 스테파니로 정하지 못한 빈지노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기억을 리스너들에게 온전히 전달해줄 수 있는 이 앨범 커버가, 어쩌면 과하게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앨범명을 설정하는 것보다 좋은 선택지였던 것 같다.



## 저금통

23.07.13



## 이방인

19.07.22

## The Anecdote

15.08.27

KMH

# ROAD TO 저금통

by EASYB

## 삶 그 자체가 힙합이 된 이센스가 JEOGEUMTONG에 이르기까지

### <The Anecdote> (2015.08.27.)

슈프림팀 활동으로 비롯된 메인스트림 진출과 컨트롤 이슈, 나아가 감옥 수감까지. 이센스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이 얹혀있는 상황에서 발표가 예고된 이센스의 첫 스튜디오 앨범이자 옥중앨범 <The Anecdote>에 대한 기대치는 높을 수밖에 없었다. 작품은 굉장히 자전적이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누구보다 솔직한 스토리텔링으로 자신의 경험을 유려한 랩으로 풀어낸다. 오비가 주조한 프로덕션과 이센스의 랩 자체만으로 빼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지만, 이센스의 과거 경험에 대한 솔직한 감상과 고백이 있기에 작품의 맛은 더욱 깊어진다. 어린 시절의 자신감, 가족을 향한 애정과 그리움, 창작의 고통과 강박,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 어우러져있는 <The Anecdote>는 이센스이기에 만들 수 있었던 한국 힙합의 역작이다.

### <이방인> (2019.07.22.)

세상에 맞서 싸웠던 래퍼는 결국 이로부터 단절되었다. <The Anecdote>에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토해낸 바 있지만 감옥 수감이라는 경험은 다시 한번 그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방인>은 이 혼란을 다시 한 번 쓸어내는 작품이다. 자신이 혐오하는 부류와 시스템에 관한 날선 이야기 속 자신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진중한 생각들과 냉소가 어우러진 이센스의 감정과 애틀리드가 있는 그대로 그려진다.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고뇌하는 이센스를 마주할 수 있는, 솔직함이깃들어 있는 작품이다.

### <저금통> (2023.07.13.)

마음속 쌓여있던 이야기를 털어내는 데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제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내면의 짐을 어느 정도 정리한 이센스. 이제는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내고 냉소보다는 분노와 열정을 앞세우며 눈앞의 지금에 집중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저금통>에는 이센스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빼어난 기교가 집대성되었다. 촘촘한 라이밍과 특유의 유연한 플로우가 만들어내는 랩의 쾌감은 더욱 높아졌고 작중 이야기 역시 좀 더 직관적이고 가벼워졌다.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단순히 이센스의 랩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작품이다.



1. No Boss (feat. Dok2)
- 2. 저금통**
3. A Yo (feat. Beenzino)
4. What The Hell
5. Piggy Bank
6. Gas (feat. Jibin from Y2K92)
7. 쥐
8. How To Love
9. 열심히 해 (feat. Hukky Shibaseki)
10. Vanilla Sky
11. 기분 (feat. DeVita)
12. I'm Back (feat. Uneducated Kid)
13. Real Ones (feat. Sukhoon)

# 저금통

E SENS 23.07.13

누군가 E SENS의 랩에 대해 설명해보라 한다면 나는 한 단어로 설명할 것이다. 본능. 나는 E SENS의 DNA를 파헤쳐보면 반드시 한구석에 랩 유전자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에게 랩이란 말하고 숨 쉬는, 몸에 배어있는 습관 같은 것이다. 그런 E SENS가 4년 만에 <저금통>으로 돌아왔다.

발매 당일 <저금통>의 배를 갈랐을 때, 개인적으로 근래 들었던 힙합 앨범 중 랩과 비트 자체의 쾌감으로는 가히 최고라고 느꼈다. 첫 트랙 No Boss(feat. Dok2)는 Blanky Munn과 New Blood를 추억하던 사람이라면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곡이다. 터지는 브라스와 함께 시작된 랩은 뱀처럼 유려하게 움직이며 팬들이 기억하던 '그 시절' E SENS를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불러온다. 피쳐링으로 참여한 Dok2도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며 과거 "3Mc's"의 향수를 느끼게 한다. 첫 곡은 랩으로는 공인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조합으로 앨범의 방향을 명확히 알려준다. E SENS의 랩 스킬은 뒤이은 모든 곡에서 폭발한다. 상당히 강조된 라임은 랩으로 출 수 있는 최상의 쾌감을 전달한다. 특히 충격적인 도입부로 시작하는 Gas(feat. Jibin)"의 두 번째 벌스는 기술적으로 정점을 찍는다. 수필을 연상시키는 E SENS 특유의 작사법 때문에 대중들은 그의 가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앨범에서는 자신이 가진 기술을 극대화하는데 더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만의 뒤통수 때리는 가사들이 분명 존재하나, 그 전에 플로우와 라임이 듣는 이의 고막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든다.

앨범의 총괄 프로듀싱을 담당한 Hukky Shibaseki는 미니멀하지만 타격감 있는 비트들로 E SENS의 랩을 한층 돋보이게 해준다. 그 중 인상적인 비트로는 "A Yo (feat. Beenzino)"와 "What The Hell", "How To Love", "Real Ones (feat. Sukhoon Chang)"을 꼽고 싶은데, 특히 "What The Hell"에서 쓰인 기타와 드럼은 고개를 도저히 가만두지 못하게 한다. 반면 "How To Love"는 오래간만에 듣는 E SENS의 사랑 노래로, 부드럽고 끈적한 분위기의 트랩 풍 비트가 일품이다. "Real Ones"에서는 앨범의 마지막에 알맞은 Chill한 분위기의 깔끔한 비트로 마무리한다.

앞으로 남은 4달 동안 어떤 앨범이 또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저금통>만큼 랩과 비트에서 정점을 찍은 앨범이 여럿 나오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E SENS는 바늘로 섬세하게 가공한 자신의 작품을 차곡차곡 쌓아 가져왔고, 우리는 그 저금통을 선물받은 셈이다. 이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어느 인터뷰처럼 곧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올지, 아님 올림픽처럼 또 4년 뒤에 다시 돌아올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젠 그가 언제 돌아오든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다.

#cfa4b7



#bb9473

<The Anecdote>와 <이방인>에서도 그랬듯이, 이센스의 앨범 커버는 그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감상처럼 여전히 차갑고 냉소적이다. 블루톤의 필터와 네이비색의 후드와 비니를 쓴 이센스의 모습은 이번 앨범 역시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분위기가 아닐 것을 암시한다. 진지하고 차가운 분위기 속 시선을 끄는 연한 핑크색의 돼지저금통이 포인트라면 포인트이며, 앨범 전체에 만연하는 시니컬한 블랙조크 속 리스너들을 마주하는 유머들을 시각적으로 전달해준다.

#424450



#a1784c

또한, 핑크색 돼지저금통의 존재는 컨셔스한 이미지에 갇혀있던 이센스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재치와 유머를 통해 한계를 깨려 한 노력을 보여준다.



A G  
STUDIO

WE DO  
EVERYTHING  
BUT SELL  
ANYTHING  
RIGHT  
SAFELY  
NICE

# NOWITZKI & JEOGEUMTONG

## 공ZA

참여자: 악귀불패워럽, WAVE, nicolas, writersglock, loding (이하 악, W, N, WG, L)

### NOWITZKI

#### Section 1: 앨범을 듣기 전 기대감

**악** 사실 빈지노가 전작들이랑 같은 걸 들고 올 거란 생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Lifes Like>와 <24:26>이 다르고, 또 <Up All Night>이랑 <12>도 전부 달랐잖아요? 특히나 바나 라인업에 백현진 선생님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힙합과는 꽤나 거리가 있는 물건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각오도 하고 있었죠.

**W** 선공개 곡들을 들어봤을 때, 청자들이 평소 빈지노에게 기대했던 음악과 조금 다른 인상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OWITZKI'란 이름만 들었을 땐 '셀프 메이드나 먼치킨 같은 주제인가?'란 생각도 했으나, 그가 그런 감성을 주로 다루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더 헛갈렸어요.

**악** NBA에 대해서는 문외한인지라 노비츠키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그런 방향으로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네요.

**N** 빈지노는 항상 본인만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며 살아왔던 것 같은데 이 앨범이 그가 미래에 그리던 본인의 삶이 무엇인지 음악으로써 표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랩스타적인 면모보다 인간 임성빈에 대해 느끼기 쉬웠다고 생각해요.

또한 전작처럼 그의 삶의 일부분을 담고는 있겠다 싶었는데 앨범 명이 <NOWITZKI>라길래 '어라 이건 또 뭘까' 싶은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앨범 재생 버튼을 눌렀던 것 같습니다.

**악** 미래 얘기도 그렇고 빈지노 커리어에서 '시간'이라는 테마는 매번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드웨어는 매번 바뀌었지만 어찌보면 참 한결 같네요.

**W** 원래 예정된 제목이 '스테파니'였던 것도 그렇고, 언제나 앨범을 낼 때마다 과거의 빈지노가 아니라 현재의 빈지노가 많이 담겨있었죠.

**WG** 개인적으로 래퍼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음악에 가장 솔직하게 반영하는 아티스트가 빈지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비슷한 감상을 받았던 건 얼마 전에 <Empire State Motel>을 낸 QM이었구요. 저는 원래부터 빈지노라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여기 계신 분들만큼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라 엄청 기다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지팩트는 진짜 좋아하는데 빈지노 개인 작업물들은 이상하게 손이 안 갔어요. 그래도 그가 가진 음악성은 잘 알고 있기에 선공개한 "Monet"를 들었을 때는 '오 이거 랩으로 다 패버리는 앨범이 되려나'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공개한 "soda"나 "Trippy"를 들다 보니 '어? 예상이 안 되네' 싶었고, 그래서 오히려 관심이 더 생겼습니다.

**약** 사실 저는 Young Thug의 <JEFFERY>같은 앨범일 가능성도 예상하긴 했지요. 존경하는 사람 이름 제목에 박고 정작 내용은 별 상관 없는...

**L** 당시 선공개 곡이었던 "Trippy"를 처음 들어보고 '아 이 앨범은 분위기 밝은 앱스트랙한 느낌으로 가겠구나'하는 생각을 미리 했었어요. 실제로 <NOWITZKI> 본작의 3번 트랙까지는 이러한 제 예상에 부합하기도 했고요.

**약** 나중에 찾아보니 Tyler, The Creator 타입 비트였더라고요. 앨범의 첫 트랙도 Earl Sweatshirt 타입 비트였으니 많은 리스너들이 오드 퓨처를 언급하게 이해되더군요. 첨언하자면, 북유럽에서 작업했다는 얘기 듣고 채도가 묘하게 낮을 것 같았는데 막상 앨범에는 "여행 Again" 같은 발랄한 트랙도 있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 Section 2: 소감

**약** 일단 앨범을 다 듣고 느낀 건 '모던하다'는 거였어요. 모더니즘 건축을 보면 공간 구성을 최소화하고 이용과 해석은 이용자에게 맡기는데, 앨범 가사들을 보면 여러 심상들을 가능한 절제해서 담아내잖아요? "Change" 가사에서 특히 그런게 느껴졌어요.

이처럼 심상을 일으킬 만한 최소한의 표현만 담백히 담아내고 그 해석과 감상은 리스너가 상상하며 알아서 느끼도록 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방식이 모두가 딱 좋다 할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작인 <12>와 비교하자면 전작은 초현실주의, <NOWITZKI>는 모더니즘 내지는 미니멀리즘의 느낌에 가깝다고 느꼈어요.

**W** 저도 빈지노의 전공을 생각해봤을 때, 미술사조에 빗대어 접근하는게 공감이 가네요.

**N** 동의합니다.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서도 '앨범의 유기성은 내 목소리 정도다'라고 할 정도이니, 해석을 온전히 청자에 맡긴 것 같은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L** '모던하다'라는 말이 진짜 적당한 한 줄 요약이네요. 본문에 적힌 "Change"도 자기가 키웠던 개 '창이'와의 이야기를 엄청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보단 그나마 내용을 쉽게 유추할 수 있을만하게 작성하기도 했고요. 어찌 보면 청자들이 해석을 잘 할 수 있도록 일부러 미니멀리즘하게 구성한 거 같기도 해요.

**W** 저는 앨범에서 전반적으로 '해방'이라는 주제를 다룬다고 느꼈습니다. 빈지노는 대중적인 감각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앨범을 들었을 때 그런 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느껴졌어요. 라임과 플로우의 구성도, 가사의 내용도 평소의 그처럼 섬세하게 조각했다기보다, 그냥 그 순간 느낀 감정들에 충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몇 성의없다고도 느껴질 수 있는 가사들('회, 회, 회' / '굽이굽이굽이', '바보같이해' 등) 또한 '가사를 성의있게 써야 한다'라는 강박을 일부러 비틀은 느낌이 들었달까요. "여행 again"처럼 플로우도 그냥 빠르게 하고 싶음 빠르게, 대충하고 싶으면 대충하고. 본인이 그간 쌓아온 아티스트로서의 인상과 기대, 부담감 등에서 해방되고자 의도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작품에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WG** 그래서 전반적으로 편안함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청자의 편안함이 아닌 아티스트의 편안함에 가까웠죠. '나하고 싶은거 할테니까 알아서 들어~' 같은 느낌이요.

**W** 맞아요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청자에겐 불친절로 다가오는 부분도 꽤 있었죠. '하.. 빈지노니까 듣는다.' 와 같은 감상을 남기신 분도 있었죠.

**악** 바나에서 지원을 팍팍 해주니까 진짜 자기 하고팠던 것을 다한 것 같아요. "Coca Cola Red", "990" 같은 정석적인 넘버도 있고, "Sandman"은 시티팝 냄새도 나구요. "Crime"은 무척 실험적이었으니, 어찌 보면 '바보같이' 하는 걸 하이 퀄리티로 풀어낸거죠.

**N** 저는 전작들에 비해 이번 작이 더 아티스틱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인 느낌의 앨범인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비트도 그렇고 가사들도 그렇고 '나한테 의미 있는 걸 낼 거다'라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만큼 물론 난해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해서 모든 가사의 정확한 속뜻까지는 파악이 어렵겠지만, 빈지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삶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에 대해 알기는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바보같이"가 좋은 예시죠. 근데 그냥 이런거 다 차치하고 음악 자체만 따지고 보면 곡들이 또 듣기 편하고 좋은 것들이 많아서 '뭘 말하고 싶은진 모르겠는데 호감이긴 하네' 같은 감상도 꽤 있을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청자의 해석에 따라 가볍게도, 무겁게도 들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앨범 같은 느낌이죠.

**W** 맞아요. 저는 "침대에서/막걸리"가 최애곡인데, 어떤 분이 해석하신 내용을 보니 굉장히 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별 뜻 없이 듣다가 그 글을 본 이후로 오묘하게 들립니다.

**N** "토요일에 끝에서" 같은 곡들 보면 또 그런 표현을 잘 했던 사람이나 나름 일리 있는 해석 같긴 하네요.

**악** 청자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Camp"나 "Change" 같이 보편적인 지점도 의외로 많았던 거 같아요. 또한 "Crime"에 호텔 호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시점이 빈지노와 스테파니의 첫 만남 부터 군 휴가 때 데이트인데, "Camp"에서 자연스레 군대 얘기로 이어지고, "Sanso"의 가족적 분위기가 "Change"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되구요. 이런 부분을 보면 알게 모르게 유기적인 포인트가 보이는 것 같아요.

**N** 화자가 본인이고 전하려는게 본인 삶이면 확실히 앨범에 타임라인이라는 유기성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물론 '시간'이라는 주제가 유기성을 담당한다면 그건 본인만 알 수 밖에 없게 되겠네요. 아무래도 사적인 일이다 보니 더 아티스틱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W** 유기성이란 단어가 참 어렵네요. 이번 앨범의 가장 큰 유기성은 스테파니잖아요? 심지어 너무 노골적이어서 이름까지 바꿨을 정도니까요.

**WG** 저는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빈지노 현재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투영한 앨범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스테파니를 만나 결혼을 하고 이뤄낸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 그 속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느낌? 빈지노는 과거 자신의 욕망과 고통, 시련 그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현재의 평화와 여유를 만들어줬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다보면 꼭 시간 순서대로 삶을 헤어보기보단 기억이 나는 장면을 순서 상관 않고 툭툭 꺼내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빈지노가 오랜 시간 쓴 수필집을 선물 받은 기분이었고, 앨범을 들으며 특정한 장면들을 저도 책 읽으며 상상하듯이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리를 색채화해서 이미지로 보여주는데는 정말 탁월한 아티스트구나, 라는 생각도 했네요.

**악** 원가 사진첩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수필집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방인>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다만 빈지노의 감성이 편안함에 있다면 이센스는 냉소와 역설에 초점을 맞추었죠.

**WG** <이방인>과의 연결점은 생각 못 했는데 빈지노의 수필집은 어디 꺼내놔도 상관 없을 법한 책이라면 이센스는 자물쇠로 걸어놨던 걸 풀어서 보여준 느낌이 드네요. 안에 막 욕 써놓고..

**L** 저도 앞서 다른 분들께도 말씀하셨지만 본작이 '빈지노의 일기장/수필'이라는 게 가장 적절한 소개인거 같네요. 곡 하나하나가 빈지노의 생각, 삶 등을 담아낸게 옴니버스식 구성이라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빈지노가 중점이 되는 만큼 그 자체로도 거대한 유기성이 완성되는 편이기도 하고요. 또한 주제가 주제인 만큼 곡 안에서 풀어낸 감정들이 이전작들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다가오고 그 덕분에 가장 날 것의 느낌을 받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Monet"에서 보여준 음악적 열의에서 보여주는 자신감이나 "Change"에서 보여준 분노가 그 예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의 경우 이미 전작들에서도 간간이 보여준 모습이긴 했다만 프로듀싱과 앨범에 전체적으로 깔려진 테마 덕에 색다르게 비쳤으며 후자의 경우 개인적 서사와 결합되어 이전에는 보기 힘든 감성이 보였거든요.

**악** 감정이 실려있다는 점이 확 느껴졌던 게, "I'll Be Back" 같은 트랙을 들어보면 그간 빈지노가 감정을 곡에 표현 할 때 상당히 정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Change"는 감정적인 부분이 노골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후렴에서 개 울음소리 흉내내는게 진짜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N** 맞아요, 이번 앨범이 특히 감정적인 면이 와닿아서 많이 놀랐네요. 삶에 여유가 생기고 본인을 돌아볼 시간이 생기니 감정에 집중하게 돼서 그런건지 전체적으로 chill한 느낌으로 가다가 중간중간 혹 들어오는 트랙이 있는 것 같아요.

**L** 특히 "Change"의 프로듀싱이 잔잔하게 이어져서 처음에는 편안하다는 느낌이 먼저 다가왔는데 이 내용이 나온 이후 그 안에 우울한 면모가 강해진거 같았어요. 프로듀싱 자체는 큰 변화없이 계속 루프되어지는데요.

**WG**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앨범 전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멋'이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이었어요. 제가 빈지노 개인작을 잘 안 들었던 이유가 좀 스타일리쉬하고자 하는 느낌이 나서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NOWITZKI>에서는 그 스타일리쉬하고자 하는 의도가 사라진 것 같아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N** 빈지노가 특히 완벽하다는 말도 들을만큼 흠이 없어보이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그걸 좀 보여준 느낌? 그래서 더 친숙하게도 보이네요.

**악** 정규작들에서 빈지노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12>의 빈지노는 예술가에 가까웠는데 <NOWITZKI>에서는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이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Trippy"에서 해외 아티스트 언급하는게 조금 이질적인 느낌은 있는 것 같네요.

**W** 어떻게 보면 빈지노는 원래부터 다른 아티스트들은 따라하래도 따라할 수 없는 '멋있게 보이는 법'을 아는 아티스트였죠. 다만 내츄럴한 게 아니라 스타일리시하게 보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작에서는 그런 노력을 일부러 안한 느낌이랄까요. 이 또한 해방?

### Section 3: 앨범의 장/단점

**W** 우선 전반적으로 앨범의 여유있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쉽게 썼지만 여전히 중간중간 섬세한 랩메이킹이나 프로듀싱이 빛나는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침대에서/막걸리"같은 트랙에서 '흔들려도 밸런스 잡아'란 구절이 있었는데, 가사에 맞춰서 일부러 박자와 음가를 흔드는 부분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주제도 그렇고, 중구난방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구성있게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전보다 자전적인 얘기가 많았던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앨범의 후반부 들어 지루함이 있었고, 결국 '노비츠키'라는 단어의 의미도 알기 어려웠어요. 인터뷰를 보고 나서야 조금 이해가 됐지만,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화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인터뷰를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WG** 저도 전반부가 확실히 힙합으로서의 감상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후반부는 누구나 좋아할 그런 느낌들곡이 쭉 나오다보니 상대적으로 쳐진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N** 빈지노 특유의 음절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랩 메이킹을 하는 부분이 주는 쾌감이라던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이상했을 법한 표현을 적극 차용해서 본인이 잘 소화해 낸다던가 등의 그동안 빈지노의 앨범이 가지고 있던 기술적인 장점은 이번 앨범 역시 다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음악 자체가 주는 질감이 신선하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앨범 내내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의 사운드적인 유기성이 느껴지는 긍정적인 바이브를 줘서 듣는 사람에게 하여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장점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역시 유기성을 해석하는게 어렵다보니 그걸 읽어내고자 하는 청자가 힘을 들여야하는 부분일까 싶습니다. 앨범 단위 작업물을 불친절하게 해석하게 하는 방식의 실패 사례는 수도 없이 봐 왔기에 오히려 이 정도로 난해한 작품이 이만큼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 순수하게 음원 하나하나가 가진 힘이 대단하다고 밖에 말을 못 하겠네요.

**악** 확실히 초반부에 배치된 파괴력 있는 킬링 트랙들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W** 오히려 초반에 그런 트랙들을 배치함으로써 이후 트랙들에 대한 추진력을 부여해준 셈이네요.

**WG** 질감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전반적으로 노이즈 낀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노이즈가 껴있다기보다 과거의 뿐연 무언가를 꺼낸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할까요? 저도 앨범의 장점이라면 역시나 가볍게 돌리기도 좋고, 집중해서 돌리기도 좋은 하이브리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플레이리스트처럼 무드 맞는 상황에서 틀어놓으면 정말 좋더라구요. 약간 구름낀 여름 오후에 노을을 보며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의 감상은 정말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듣는 행위는 진성 리스너들이 좋아하는거라 물론 보편적인 장점이라 보기는 어렵지만요. 단점이라면 불친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청자보다는 아티스트의 편안함이 느껴지는 앨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어쩔수 없이 청자가 불편하다는 뜻이 되니까요. '이거 뭔 소리야' 싶은 파편화된 가사나 이미지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Trippy" 뒤에 추가된 슬로우 같은 경우 저는 아직까지 약간 인상쓰면서 듣게 돼요. 무언가 의도했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지만 그 의도에 설득당하기에는 노력이 필요하단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 호불호 상관없이 "Trippy"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선공개 됐을 때랑 앨범 수록 후의 톤이 다르다고 들었어서 확실히 빈지노가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긴 했구나 싶은건 느껴지네요.

**L** 그간의 빈지노하면 예상되는 부분들에 인상 깊은 반전을 주면서도 그 만이 할 수 있는 chill한 분위기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한 그의 커리어 중 랩 실력을 가장 여과없이 보여준 앨범이기도 하거니와 그 랩 또한 더욱 유려하게 발전되어서 랩 퍼포먼스에서 오는 쾌감이 컸던 앨범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운드적으로 나 내용적으로나 난해함이 깔려있다보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 난해함이 간간이 감상을 저해하는 역할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중간 파트에 위치했던 "바보같이"와 "Trippy"가 좀 아쉬웠어요. 전자는 곡 자체는 상당히 잘 뽑혔지만, 앨범 내에서는 가장 이질적인 사운드로 인해 따로 노는 느낌이 강했고 후자는 보컬이 너무 먹먹하게 믹싱되어 있다보니 랩 퍼포먼스가 묻힌듯한 인상을 크게 받았습니다.

**약** 빈지노 본인 본위의 설계가 장점으로도 단점으로도 작용하는 느낌이랄까요?

**N** 저는 그래서 "바보같이"를 듣자마자 <24:26>의 "Profile"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이거 뭔가 또 그런 식으로 집어넣었구나' 하는 데자뷰가 있긴 했습니다.

**L** 그래도 "Profile"과 "바보같이"는 곡 자체는 고퀄로 뽑혔죠. 혹도 상당히 중독성 있구요.

**N** 야마가 보이는 곡이라서 둘 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트랙입니다. 좋은 후렴은 버릴 수 없는 빈지노만의 패시브죠.

**WG** 이쯤 되면 이것 또한 빈지노라는 아티스트의 특성이 되었다고 봐야하려나요. 짜는 흙에는 물론 장사 없죠.

**N** 갑자기 꺾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12>에서는 또 갑자기 "젖고있어" 같은 트랙이 나오기도 하구요.

**악** 저는 방금 말했지만 빈지노 본인 마음대로 앨범을 짰다는게 장점으로도 단점으로도 작용하는 느낌이에요. 보다 솔직하고 자기다운 걸 보여줬지만, 그만큼 청자들의 독해력을 더 요구하는 인상이 강했어요. 장점을 하나 더 꼽자면, 송캠프를 통해 모은 전세계 프로듀서들 덕에 때깔 좋고 이국적인 사운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초반 킬링트랙인 "990"과 "Coca Cola Red"에서 맹활약 하는 중동 프로듀서들이나, "Sanso"에서 우리나라 원로 아티스트의 사이키델릭한 선율이 따뜻하고 향토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WG** 산소는 진짜 인터루드 느낌인 게 아쉬웠어요. 물론 길이가 더 늘어난다고 좋아질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분위기 환기가 확 돼서 되게 인상적이었네요.

**N** 그동안 한국 힙합이라는 범주 내에서는 본 적도 없다시피 한 음악들이 튀어나왔다는게 확실히 장점인 것 같긴 합니다. '새로운 건 이런거란다' 같은 신선함이 주는 압도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 Section 4: <NOWITZKI>는 [ ]다

**악** <NOWITZKI>는 [보다 자신답게 담긴 가장 현재의 빈지노]이다. 여려모로 탑급 아티스트답지 않은 소탈하고 인간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인간적이고 편안한 부분 덕에 앨범이 더 아티스틱해지지 않았나..

**W** 맞아요, 빈지노의 역대 작품 중 가장 인간 임성빈을 이해할 수 있는 앨범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NOWITZKI>는 [임성빈의 내츄럴한 브이로그]다. 하고 싶은 말 다하고, 보여주고 싶은 만큼 보여주니까요. 대신 편집의 난해함은 청자의 몫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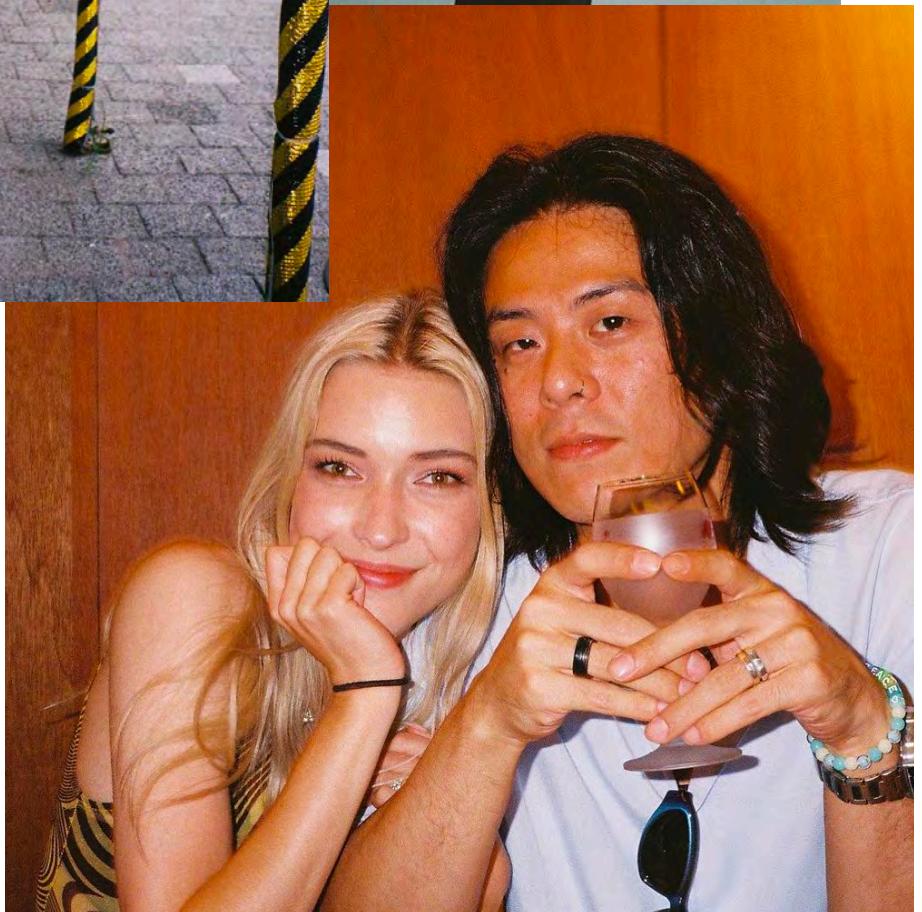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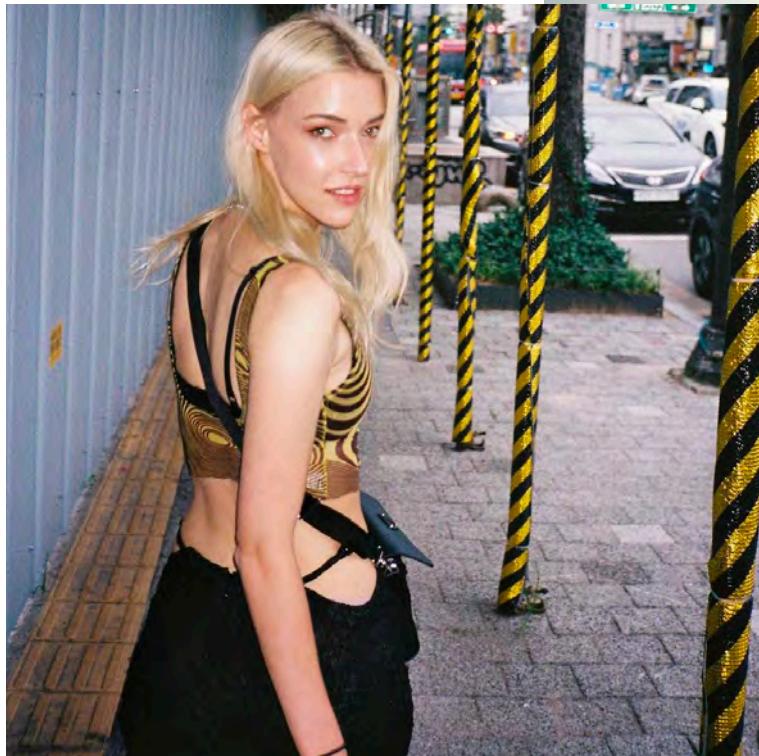
**L** <NOWITZKI>는 [빈지노스럽지 않고 임성빈스러운] 앨범이다. 기존의 빈지노가 선보인 음악들과는 다른 지향점을 선보인 앨범이었으며. 그 안에 풀어낸 내용들은 그의 여러 생각과 삶을 담아냈기 때문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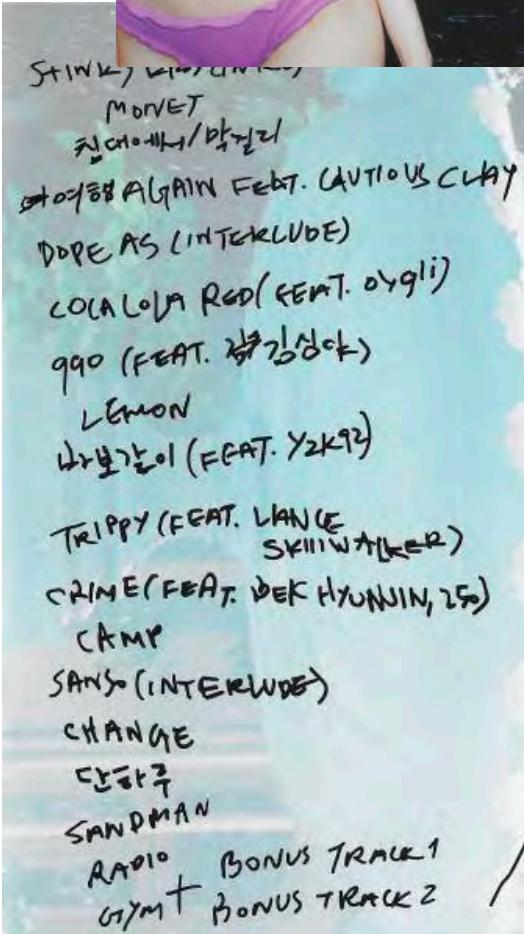
**WG** <NOWITZKI>는 [쌓아올린 기억 위에 세운 새로운 고향] 이다! 단지 현재 빈지노의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정말 잘 나타낸 앨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스테파리는 그의 새로운 고향이 앨범 전체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N** <NOWITZKI>는 [아이언맨.KR]이다. 아이언맨이 슈트를 벗으면 영웅에서 일반인으로 돌아가듯이, 영웅처럼 비치던 누군가가 슈트를 벗고 보인 일반인같은 모습을 담은 앨범이기 때문입니다.

#### Section 5: 여러분들에게 <NOWITZKI>란?

**KHL의 멤버들의 <NOWITZKI>에 대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에게 <NOWITZKI>란 어떤 의미일까요? 매거진을 보고 감상평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구라임)**





## 저금통

### Section 1: 기대감

**WG** 사실 바랐던게 있느냐하면 그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랩이야 뭐 바라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주는거 받아 먹기만 하면 될 정도로 잘하니까 애초에 기대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막연히 잘하겠지, 대신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는 좀 궁금했습니다. <The Anecdote> 때 느낌은 이제 더 나오지 못할 것 같고, <이방인> 때 느낌은 라방이나 선공개 곡을 들어보니 이미 다 소진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럼 블랭키먼?' 하고 생각했고 아 그냥 그 때처럼 존나 랩이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을 하든 일단 존나 랩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L** 이센스는 랩만 해준다면야 감사히 먹어도 되는 사람이긴 하죠.

**악** 정말 오랜만에 앨범이 나오는 거다 보니 뭘 하든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디폴트로 깔린 느낌이었죠.

**WG** 그냥 '얼마나 더 잘할까'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N** 개인적으로 이센스의 엄청난 팬이라 전작이나 간간이 올리는 작업물들을 엄청 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염세적인 이야기를 풀려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앨범 제목이 '저금통'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이번엔 돈 얘기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앨범 명을 그렇게 할 정도면 어느 정도 딥한 이야기길래 그럴까 했던 것도 같아요.

**악** <이방인>도 돈에 대한 얘기의 지분이 상당한 앨범이었으니 <이방인> 시즌 2의 느낌도 생각하기는 했어요.

**W** 역시 <NOWITZKI>처럼 예상이 쉽지 않았습니다. 바나에서 나온 후 첫 앨범이라 예측이 어려웠고, 선공개 곡들은 좋았으나 앨범의 윤곽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센스를 리스펙하지만 따로 즐겨듣지는 않아서, '전에 보여준 앨범들과 큰 차이는 없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앨범 외적으로 '와 진짜 빈지노도 그렇고 이센스도 그렇고 한국 힙합 다 죽었다더니, 다시 봄업이 좀 되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WG** 저도 그런 류의 기대감은 정말 동감입니다. '와 올해 뭐냐...' 싶었어요.

**L** 하긴 빈지노 다음에 이센스가 나온다고? 그동안 앨범 안 나오는걸로 유명한 사람들, 그것도 수많은 리스너들에게 원탑으로 뽑히는 사람들이 무려 정규로 돌아온다 하니까 기대감이 컷죠. 확실한 건 이센스가 바나를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구요. 계속 바나에 있었으면 이런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N** 빈지노랑 이센스가 같은 시기에 앨범을 발매하는 것 자체가 짠 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겹치지 싶었던 것 같아요. 리스너들은 엄청 호강하긴 했지만요. 아무래도 둘이 같은 회사에 계속 남아있었다면 수익 면을 고려할 수 밖에 없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1주일 주기로 두 앨범이 나오지는 않았겠죠.

**W** 연초에 스윙스 사단부터 해서 올해가 여러모로 재밌는 해기는 하네요. 발매일만 듣고는 둘이 싸웠나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요. 하지만 어림도 없이 바로 피쳐링 참여를 하더라구요.

**악** 하기야 작년은 좋은 앨범이라면 모를까 빅 네임들 활약은 아무래도 아쉬웠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최고등급 둘이 딱 대결하는 구도가 나온다니 이거는 고질라랑 킹콩이 다이다이 깨는 걸 보는 기분이었네요.

**L** 결론적으로 수록되진 않았지만 폴 블랑코랑 같이한 "DIE"가 나왔을 때 의외에 인물이 피쳐링으로 참여했던거도 흥미있었지만 가장 임팩트 있었던건 이센스의 랩이었어요. 다들 알듯이 이센스는 라임을 그렇게 강조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라임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유려하게 풀어내는 스타일이지... 근데 첫 벌스에서 'ㅏㅣ'로 두, 세번째 벌스에는 'ㅓㅓ'로 미친듯이 도배하는, 이전에는 보여주지 않은 모습을 선보인 채 또 이센스 특유의 박자감각도 선보이니 처음 들었을때는 당혹감이 더 앞섰던거 같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앨범 나오기 직전에 나온 "What the hell"도 비슷하게 뒷마디에 메인 라임을 강조하는 식으로 이어지니 '아, <저금통>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구나' 하고 랩 퍼포먼스에 중점적으로 기대를 한 거 같아요.

**W** 맞아요, 전반적으로 랩 퍼포먼스가 정말 엄청났죠. '나 이런거 원래 잘하잖아 ㅋㅋ'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N** 정말 폴 블랑코랑 이센스는 무슨 조합이지 싶은 느낌이었어요. 둘이 어떻게 친분이 있지 싶은 것부터 의외로 잘 어울리긴 한다 싶긴 했네요.

**악** 평소에 라임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평소의 동물적인 플로우에 강렬한 라임까지 더해지니 이건 뭐..

**WG** 랩에서 기술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느껴져서 혼자 '아 사람들이 이센스는 가사지~ 이런 말을 많이 하니 그에 대한 반발심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말씀해주신 "DIE"는 샘플링부터 피가 끓는 털ㄴ업 스타일의 트랙이었죠. 샘플 클리어가 안 된 게 정말 아쉽더라구요.

**L** 생각해보니 "DIE"가 또 확실히 문학적 요소는 코빼기도 안보인 곡이기도 했죠.

**악** 일단 선공개곡 2개 딱 듣고 느낀거는 진짜 랩에 100% 집중한 게 나오겠구나 하는 거였어요. 옛날에 "빨라"거나, <New Blood> 때 처럼 랩으로 조지던 그 때 그 시절 품 다시 보여줄걸 생각하니 심장이 떨렸어요. '저금통'이라는 타이틀을 접했을 때는 진짜 돈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걸 이센스 식의 날 것의 언어들을 거쳐서 표현한다고 생각하니까 '어쩌면 이센스 정규 커리어에서 제일 빽센 걸 기대해도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죠.

**N** 저도 이센스 특유의 단어 선택을 생각했을 때 단순 랩핑 뿐만 아니라 내용물적으로도 큰 거 하나 들고 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돈에 대한 할 말이 있다는 얘긴데 하나 마음 먹으면 물어뜯는 느낌까지 드는 아티스트니까요.

**악** 여러 의미로 동물적인 게 어울리는 MC였는데 <The Anecdote>는 그 결과치의 완성도를 떠나서 조금 인간적이긴 했죠. 물론 그 인간적이고 소탈한 작가주의 덕에 불후의 명작까지 올라선 작품이지만 어찌 보면 그 덕에 이센스의 이미지가 되려 심각해지는 부작용도 있었던거 같아요. 이번 <저금통>이 늦게나마 그런 인식을 깨준 느낌?

**L** 엘이에서도 '우리가 <The Anecdote>로 알고 있었던 게 사실은 오독이다.' 라는 뉘앙스의 글을 본 게 기억이 나네요. <The Anecdote>가 강민호의 삶이라면 <저금통>은 강민호의 성격을 잘 표현한게 아닐까 싶어요.

## Section 2: 소감

**N** 이번 작은 정말 듣는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앨범이구나 싶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사운드로 구성된 가운데 그동안과는 다르게 라임에 힘을 준 래핑이나 다채로운 피처링을 통해 지루하지 않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역시 이센스라고 느꼈던 것은 가사를 들어보다 보면 할 말은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잘하는 사람 다 열심히 해' 같은 가사들이 그랬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유기성 있게 한다기보다 각 트랙 별로 할 말을 조금씩 보탠 느낌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내공이란 이런 거구나. 역시 이센스는 랩을 잘 한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네요.

**L** 확실히 돈이 메인 테마고 그 안에서 엮여지는 할 말들을 하는 성격이 강하긴 했어요. 심지어 "How To Love"는 돈보다는 사랑이 중점이기도 했고요.

**N** 맞아요. 트랙별로 다른 주제가 하나씩은 다 있는 느낌. 그런 와중에도 도끼랑 같이 한 트랙을 보면 또 이센스만의 특징은 여실히 다 보이는 느낌이어서 듣기 좋은 랩이라도 그만의 스타일은 버리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바스코가 빌스택스가 된 급의 느낌은 아닌 정도였던까요.

**W** 이센스 또한 빈지노처럼 이미지의 변화를 꾀한 것 같습니다. 자서전 같은 <The Anecdote>, 진중한 분위기의 <이방인> 등을 통해 컨셔스한 이미지가 그에게 자연스레 자리 잡았는데, 이번 앨범에서 그런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싶어하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싫어하는 사람이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거침없이 말하고, 사랑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하고. 대신 이 모든 것들을 전작들처럼 진중하게 다루기보단, 훨씬 가볍게 풀어냄으로 인해 한결 듣기 편한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섬세함보다는 강렬함이랄까요.

**L** 말 그대로 진지하게 다루기보단 썰 푸듯이 가볍게 다룬듯한 인상이 강한 앨범이었어요. 내용 상 크게 중요한 내용이 있다 보기도 힘들었구요.

**N** 이쯤되면 바나가 이센스에게서 그런 이미지를 이끌어냈던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은 생각없이 막 뱉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전작과 같은 프로듀싱을 해준걸 보면. 이런걸 보면 이센스가 다른 걸 해보고 싶다고 바나를 나온게 의미있는 일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L** 일단 확실한 건 이센스의 정규 중 청각적 쾌감 면에서 최고봉에 드는 앨범이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동물적인 플로우를 선보이는 사람이었지만 라임 강조로 랩에 타격감을 더한다든지, "Gas"에서 최초로 트리플렛 플로우를 선보인다든지 등 작정하고 랩으로서 정점에 섰단걸 증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 감탄밖에 안 나왔어요. 특히 프로듀싱의 드럼 질감도 <The Anecdote>나 <이방인>에 비해 더욱 가벼워지다 보니 믹스 테이프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솔로 곡에선 거의 없었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다룬 "How to love"를 빼면 그간 보여준 스토리텔링 능력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게 아쉬웠지만, 랩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한 판단이라 생각되긴 합니다. 인상 깊은 펀치라인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으니 크게 불만족스럽지도 않았고요.

**악** "Gas"를 듣고는 '이센스가 이런것도 한다고?'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심지어 잘하기까지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W** 딱 <저금통>의 핵심인 부분 같습니다. 이센스가 가진 스토리텔링 능력을 가볍게 덜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청각적인 재미를 가미한 느낌. 이걸 탑 급의 래퍼가 보여주니 황홀했네요.

**N** 펀치라인이 나름 앨범 자체의 인상을 각인시키는 데 한몫하는데, '이센스 그래서 박재범보다 잘 짔?' 같은 건 정말 전작에서는 볼 수 없던 유쾌하면서 인상 깊은 라인이었네요.

**WG** 프로듀싱을 빼놓을 수가 없는게 단순한 루프 중심의 비트들이 주를 이루다보니 더 이센스의 랩에 집중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비트가 아예 뒤로 빠져있던 것은 아니지만 비트도 랩을 위한 장치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L** 생각해보니 전작에서는 비트가 조금이라도 바뀌는 부분이 있었는데 본작은 그런 파트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악** 이런 시니컬한 블랙조크덕에 앨범이 좀더 재밌게 술술 넘어가는 느낌이 있던것 같기도 해요. <저금통>은 제가 처음에 기대한 걸 기대한 만큼의 퀄리티로 만족스레 내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초반에 허키가 Y2K 냄새 풀풀 나는 비트를 딱 깔아주고 그 위에 짐승처럼 어슬렁거리는 이센스 랩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옛날에 Dr. Dre의 비트를 갈아버리던 믹스테잎 시절의 이센스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 위에 빈지노, 도끼같은 고참들도 덩달아 빽세게 뺏어주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후반부에 좀 더 다양하게 트는 와중에도 특유의 퍼포먼스는 완성도가 여전히 훌륭했고, 이게 최신의 젊은 아티스트들과 어떻게 섞이는지 보는 것도 또 하나의 감상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센스가 음악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들을 앨범에 담아냈는데도 이거를 일정한 채도로 깔끔히 보좌해 주는 허키의 프로듀싱도 좋았고요. '좋은 랩+좋은 비트=좋은 앨범'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진짜 하이 퀄리티로 해버리니, 장르 팬 입장에서는 종합 선물세트 같았습니다.

**L** 이런 류의 힙합 팬이라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은 다 챙기긴 했네요.

**WG** 이센스 자체가 불호가 아닌 이상은.. '즐겁다'가 한 바퀴 다 돌린 뒤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냥 좋았어요. 오랜만에 듣는 이센스의 랩도 그렇고, 청각적 쾌감에 몰빵한 랩과 비트 덕분에 아마 도파민이 미친듯이 나왔을거예요. 한 트랙 한 트랙 들으면서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NOWITZKI> 때도 트랙마다 감탄을 했었는데 그때는 분위기나 신선함 등에 감탄했다면 <저금통> 때는 랩, 비트 이 두 개에서 그냥 끝장나 버렸어요. '잘하는거 진짜 잘해버렸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악** 진짜 잘하는 랩을 뚱텅이로 먹으니까 너무 배부르고 만족스럽긴 하더라고요. 이런 맛이 좀 그립기도 했거든요. 잘하는 비트에 잘하는 랩, 이게 너무 당연한건데 그만큼 하이엔드로 뽑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이센스가 딱 해주네요.

**N** 저도 힙합 음악 감상하는 느낌이 물씬 들어서 그냥 고개 끄덕거리면서 '이거지~' 했던 것 같네요. 돌아켜 보면 이런 류의 앨범이 근년 들어서는 오히려 적었던 것 같아요.

### Section 3: 앨범의 장/단점

**L**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센스가 자신이 엄청 잘한다는 걸 대놓고 드러낸 랩을 전곡에 깔아둔 것만으로도 들을 가치가 있는 앨범이었습니다. 진지하기보단 썰 푸는 듯한 느낌에 가벼운 내용과 프로듀싱 덕에 이센스 커리어 중 가장 이지리스닝이 가능했기에 접근성 또한 뛰어난 편이었고요. 하지만 스토리텔링 면이 크게 부각되는 앨범은 아니기에 이를 기대했다면 많이 아쉬웠을 것 같네요. 그리고 도끼, 빈지노를 제외한 피처링진이 이센스와의 합이 약간 어울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도 아쉬운 부분까진 아니었다만 그래도 호불호의 여지는 클 거 같다 느껴지긴 했습니다. 특히 "Gas"의 경우 피처링으로 참여한 지빈이 워낙 극강의 호불호가 갈리는 스타일의 소유자이기도 하구요.

**N** 호불호에 대해서는 인정입니다. "Gas" 같은 트랙은 <The Anecdote>나 "독" 같은 트랙으로 이센스를 접한 사람이 단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긴 했어요. 그래도 이센스가 그런 신세대 아티스트들을 좋아하고 재밌어해서 앨범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그런 음악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호불호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쭉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악** 저는 "Gas" 피처링은 극호였어요. 지빈 특유의 날카로운 톤이 808베이스에 꽂나 잘 묻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이센스가 젊은 아티스트들 중에서는 의외로 좀더 러프한 아티스트들을 선호하는 경향은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바이스벌사라거나 다민이도 생각나네요.

**WG** 인터뷰에서 "랩 잘 하면 다 좋아해요"라고 밝히기도 했죠.

**악**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랩 자체의 쾌감이 너무 좋다보니 이센스의 앨범 중 듣는 맛이 제일 일품이라는 점이었어요. 군데군데 칠진 편치라인으로 감칠맛 더하는 것도 느낌 있었고요. 초반부에 배치된 베테랑 MC들의 퍼포먼스도 짬밥 이상의 관록을 보여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반부에 배치된 젊은 아티스트들의 개성이 워낙 뚜렷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언에듀케이티드 키드 특유의 단순무식한 퍼포먼스는 싫어할 사람은 질색하는 퍼포먼스기도 했구요.

**L** 개인적으로도 언에듀의 개성이 너무 강해서 좀 거슬리게 느껴지긴 했어요. 다만 이렇게 우직하게 스타일 고집하는 방식이 또 언에듀스럽기도 했네요.

**W** 언에듀도 보면 오히려 평소하던 것처럼 골 때리게 짜는 게 아니라 진중한 트랙에서는 매력이 많이 감소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살짝 부담이 된건지 퍼포먼스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Y** 플로우 디자인 자체가 좀 단순하다 보니 단조로움을 톤 자체의 러프함으로 커버치는 것 의도한 것 같기는 했지만 아쉽기는 했네요. 그렇다고 언에듀가 스타일 바꾸는걸 생각하는 건 쉽지 않기는 하죠.

**WG** 트랩 비트에서는 언에듀의 스타일이 잘 묻는데 블랙에서는 약간 어중간해질 때가 있는 것 같긴 해요.

**W** 점점 얼터너티브한 음악이 많아지고, 색채가 점점 열어지는 지금같은 때에, '힙합은 이런 것이다'라고 다시금 환기시켜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난 앞으로 이렇게 할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작품이나 피쳐링 등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시간을 머금으며 더욱 정교해지고 능숙해진 베테랑의 랩핑이 좋았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프로듀싱 또한 앨범을 소화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나는 라인들은 많았지만, <이방인>의 "Radar" 같은 킬링트랙의 부재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건 피쳐링의 기용이었어요. OG들의 피쳐링은 좋았으나, 그 외의 피쳐링들은 맛을 더해주거나 환기시켜 준다기 보단 되려 혼란함만 줬다고 생각해요. 특히 Jibin님의 흙이 많이 루즈했습니다. 텐션을 좀 올려줬으면 싶었는데, 평면적으로 가더라고요. 다른 흙잡이가 했으면 더 결과물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싱도 아쉬움이 있었어요.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너무 기본적인 맛에만 충실해서 좀 맛밋한 느낌? 비트나 앨범 구성이 좀 더 정교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앨범 내에 매력적인 장치들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L** 저는 반대로 킬링트랙이 대거 있었다고 느껴졌네요. 개인적으로는 "Gas"랑 "How to love"가 최애이긴 했다만 그 외에도 기억나는 트랙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Y** 오히려 이런 베이직 함이 저금통의 매력인 것 같아요. 좀 더 틀었으면 오히려 이도저도 아니었을 듯 하네요. 그리고 초반부 두 트랙("No Boss", "A Yo")이라거나 "Gas", "열심히 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킬링트랙이었다고 봅니다.

**W** 저도 트랙 중에선 "How to love"가 유독 기억에 남긴 합니다. 물론 베이직해서 좋았지만, 또 베이직해서 아쉬운 부분이랄까요. 장단이 함께 있던 느낌입니다.

**N** 킬링 트랙이 사실 앨범 자체를 관통하는 앨범 그 자체 급의 트랙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극단적으로 사람에 따라 킬링 트랙이 없다고 느끼거나 전부 다 킬링 트랙이다 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이 중에서 뭔가 하나 꼭 들어야 되는 거 골라봐라 하면 근데 저도 뭘 고를지는 모르겠긴 하네요. 아예 다 들어보든가 뮤비 나온거라도 들어봐라 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WG** 킬링트랙이란 말에서 '킬링'의 기준이 다들 다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라면 "What The Hell"을 추천하겠습니다. 장점 이야기로 넘어가서 다른 분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랩입니다. 그냥 이센스의 랩 그 자체만으로도 이 앨범은 가치가 있어요. 수년간 갈고닦아온 기술을 빠짐없이 모두 펼친 느낌이었습니다. 제게 랩으로 이 정도의 충격을 준 앨범은 최근 몇 년 동안 몇 안 될 거예요. 이센스의 랩적인 에센스가 전부 담긴 앨범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좀 더 꼽아보자면 완급조절이 있네요. 앨범 안에서 마냥 강강강만 있는게 아닌 강약 중강약 템포를 능숙하게 조절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점은… 진짜 꼽기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믹스테잎 감성이라 이거 정규 앨범으로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왜 정규 앨범으로서 단점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The Anecdote>가 가져온 "정규= 좋은 서사" 구조 때문이 아닐까 막연히 생각하는데, 사운드적 통일성도 유기성에 해당하잖아요? 어쨌든 굳이 굳이 하나 찾자면 피쳐링진이 좀 무난하게 느껴졌다? 물론 도끼나 빙지노는 미친 기량을 보여주긴 했는데 계속 듣다보니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무난히 좋은 정도에 그쳤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앨범 주인이 이센스다보니 무난히 좋은 정도로는 성에 차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네요.

**W** 적어도 랩에 지지 않거나 그에 상응하는 다른 매력을 보여주어야하기 때문에 정상급 래퍼들 트랙에 피쳐링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네요. 비트도 베이직한 맛이라 더욱 살리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악** 생각해보면 이센스 앨범에서 게스트가 부각되는 경우가 잘 없기는 한것 같아요. "Radar"에서의 김심야 정도가 예외라면 예외일텐데, 그만큼 이센스의 퍼포먼스가 독보적인 것 같네요.

**WG** 사실 이번 앨범에 참여한 아티스트들 보면 다 특색에서는 어디가서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긴 해요. 근데 특색도 좋은데 퍼포먼스 면에서 익숙한 맛이다보니 상대적으로 더욱 저평가받는 것 같네요.

**악** 언에듀라거나 빙지노라거나 지빈이라거나.. 근데 그 익숙함이 오히려 반가웠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당장 "No Boss"는 조합부터가 옛날 "Rhyme King"이 생각나기도 하구요. 도끼나 이센스나 이런 단순한 맛을 가장 멋있게 살릴 수 있는 분들이라 더더욱 그런 걸지도?

**N**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더 많은게 들리는 앨범이었네요. 떡밥을 엄청 넣어놓은 영화처럼요. 이렇게 보면 이센스의 과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앨범을 듣는다면 극단적으로 그냥 랩이네 싶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피쳐링진을 고른 걸 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앨범 꽤나 클럽에서 놀기 좋은 트랙들로 구성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클럽에서 소규모 공연하는걸 좋아하기도 하고. 래퍼가 분위기 띄우기 좋은 노래를 만들려다보니 피쳐링도 그렇게 가는 느낌이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WG** 그래서 리스닝파티 영상 보면 진짜 난리 났더라고요. 공연하면 꼭 가야겠다 싶었네요.

**N**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자면 정말 제대로 된 랩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냥 랩만 주구장창 하는 앨범이 요즘엔 잘 없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힙합 팬들의 가뭄에 단비를 뿌려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센스의 색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는 점도 좋았던 것 같아요. 신세대 아티스트들과도 잘 어울리고 색다른 사운드 속에서도 묻히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풀어나가는 점이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굳이 하나 더 뽑자면 쿨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 앨범의 멋을 살려준 것 같아요. 인트로나 아웃트로 같은 트랙 없이 틀자마자 랩에 페이드 아웃으로 딱 끊어버린 마지막 트랙이 이센스다운 성격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단점으로는 어디까지나 이센스의 전작과의 비교이긴 하지만, 앨범의 무게감이 가볍지 않았나 싶긴 했습니다. 본작을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놀이터 정도로 두고 래핑을 이어나간 느낌이라 웬만하면 앨범 단위로 감정선을 이어가면서 듣는게 좋았던 전작에 비해서는 본작은 좋은 트랙만 몇 개 골라 들어도 괜찮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앨범 자체의 입장만으로 보자면 앨범 단위의 소비를 촉진시키지는 않기에 단점으로 두었습니다. 이 역시 이센스 앨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기 때문이겠지만요.

**악** 사실 저는 이런 가벼움이 더 반가웠어요. 당장 슈프림팀 이전 이센스의 대표작이 뭐였나 생각하면 "팔라"도 그렇고 <New Blood> 믹스테잎도 그렇고 죄다 유쾌한 결의 뱅어들이잖아요? 그 부분을 진짜 오랜만에 더 노련하게 가져와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W** 저는 단점이 특히 공감되네요.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변화를 피하고 싶고, 리스너 입장에서는 전작들에서 보여준 좋은 모습을 또 보고 싶어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너무 어려운 문제죠. 빈지노는 아예 그런 기대감에 질려서 이번 앨범에서 플롯 트위스트를 해버린 거구요. 빈지노는 변화를, 이센스는 Throwback을 택한 느낌?

**악** 위에서도 말했지만 변화라기보다도 오히려 보다 본능적이고 야성적인 2000년대 이센스 느낌으로의 회귀로도 느껴졌던 것 같네요.

**N** 저도 정말 생각 많이 안 하고 그냥 잘하는거 해서 내야겠다 싶은 느낌이라 많이 반가웠던 것 같아요. 팬의 입장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너무 명반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갇혀서 작업해온 느낌이라 그런 입장에서는 가벼운 앨범이라도 너무 반가웠네요. 그리고 보면 빈지노와 이센스, 두 아티스트 다 더 본인스러운 걸 가져왔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네요. 아티스트로서의 자아 말고 임성빈, 강민호로서의 자아에서 가져온 앨범들이랄까요.

**WG** 어느 매체의 한 인터뷰에서 이 비슷한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뭐 이것저것 신경쓰고 내가 무조건 잘해야 한다 생각하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냥 <New Blood> 내기 전 그때처럼 아무도 날 모르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던 그 마음가짐으로 돌아가보니 랩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L** 아이러니하게도 접근성은 서로 상반된다는 거네요. 의견을 모아보면 결국 장점은 이센스의 랩으로 통일인 거군요. 이센스.. 그의 랩은 도덕책... (도덕빈 아님)

**WG** 방법은 상반됐더라도 추구하는 바가 같았으니 한 지점으로 수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극단은 서로 통한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랩 자체만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래퍼가 진짜 몇이나 될까요?

## Section 4: <저금통>은 [ ]다

**약** <저금통>은 [실로 오랜만에 돌아온 랩하는 짐승 이센스]다. 퍼포먼스만 딱 봐도 플로우 움직임이나 박자 감 같은 게 본능적인데 그 부분을 보다 뚜렷해진 라임까지 더해서 극한의 쾌감으로 완성시켜 버리니 한 마리의 짐승 같았어요.

**WG** <저금통>은 [도파민]이다. 힙합 리스너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정확히 눌러준 느낌. 이에 반응하지 않을 리스너는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N** <저금통>은 [잘 보관해둔 레코드판]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향수를 느끼게 하기도 하고, 또 잘 만든 랩 그 자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요즘의 트렌드와는 차이를 두는 앨범이지만 그 퀄리티는 좋았기 때문이다.

**W** <저금통>은 [RAP SHIT]이다. 설명이 필요한가요? 그냥 느끼면 됩니다.

**L** <저금통>은 [<New Blood> 23년도 버전]이다. 물론 <New Blood>와 <저금통>은 큰 결 자체는 다른 앨범이긴 하나, 최고의 랩 퍼포밍에 중점을 둔 모습과 가벼운 인상의 앨범 분위기는 <New Blood>를 처음 들었을 때에 감상의 재현을 느꼈습니다.

## Section 5: 이센스 VS 팔로알토?

**약** 이렇게 보니 팔로알토가 말한 '혁신적이지 않다' 이거도 선뜻 이해가 되는게 <저금통>은 2000년대 이센스의 보다 노련한 연장선에 위치한 앨범이잖아요? 물론 그걸 이렇게 하이 엔드로 뽑아줬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만족이지만요.

**W** 맞습니다. 저도 팔로알토 얘기 처음 접했을 땐, '그치, 그렇게 생각할만한 포인트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게시판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WG** 혁신이란 말이 아티스트한테 역린처럼 다가갈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이센스가 자극받을만 했었어요.

**N** 아무래도 메시지보단 메신저를 보는 경향도 있다보니..

**L** 사실 마지막 부분이 실언 느낌이 강한지라 아쉽긴 했어도 그 위에 있는 얘기들은 충분히 꺼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센스 VS 팔로알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3

editors' pick

#03



#03

editors' pick

#03



## [COSMOS]

D'allant  
20.11.16

by loding

여기 자신을 우주정찰대라 칭하는 이들이 있다. 기억을 잃은 채 선체에서 깨어난 이들은 스스로를 여러 행성의 생물체들에게 우주에 대해 정찰보고서를 들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보컬 DAYE와 프로듀서 Pizzafairy로 이루어진 팀 D'allant의 정규 <[COSMOS]>는 총 두 번의 중간보고를 거치며 완성된 태양계 정찰보고서이다. 수성부터 명왕성까지, 여러 태양계의 행성들을 하나로 연이은 본작은 신스팝, 힙합, 재즈, 댄스 등 다양한 장르들을 선보이면서 뉴트로한 감성을 자극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표현하는 데는 Pizzafairy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에 기반한 센스있는 사운드 활용이 빛을 발했으며 DAYE 또한 변화무쌍한 보컬 퍼포먼스를 펼치며 곡의 매력을 더해주었다.



## 미소예찬

Hookuo, Jue  
23.03.08

by 공ZA

사람들은 왜 옛 것에 끌릴까? 기성세대에게는 자신이 경험했던 시절을 다시 한 번 새로운 감성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고, 그 뒤를 잇는 세대들에게는 옛 것 그 자체가 색다른 자극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에잇볼타운 프로듀서 후쿠오와 성숙한 목소리를 지닌 보컬 주애의 <미소예찬>은 앞서 말한 옛 감성의 사운드를 현재의 감각을 더해 세련되게 풀어낸다. 9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투투와 룰라의 감성을 한 앨범에서 즐길 수 있는 것. 경쾌한 분위기 뿐만 아니라 힘든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따듯한 미소처럼, 오밀조밀하게 다양한 악기로 구성되어 있는 사운드와 그 위를 타고 흐르는 주애의 목소리는 귀를 부드럽게 감싼다. 때로는 포근한 "포옹"처럼, 혹은 시원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옛 감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그들이 예찬하는 소리를 추억으로만 남겨두기에는 너무나 아쉽다.



## O, Pruned!

JCLEF

23.03.27

by nicolas

Jclef의 <O, Pruned>는 사라지고 싶어하는 친구에게 보내는 일종의 편지이다. 해서 이번 작품의 프로듀싱은 그녀의 전작과 다르게 아날로그의 감각에 가깝다. 각 곡들은 기타 선율 위에 보컬이 올라가는 단순한 조합에 더해 편집 또한 거의 거치지 않은 무대에서의 녹음본을 듣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그 느낌이 앨범 내내 유기성을 가지고 이어지며, 누군가의 편지를 옆에서 엿보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한다. 따뜻한 프로듀싱과는 다르게 이 앨범의 주된 정서는 '상실에 대한 그리움'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나무의 가지를 침으로써 미래에 더 잘 자라게 한다는 뜻의 단어를 차용한 앨범명을 통해, 자신이 편지를 보내는 그들에게 가지 쳐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은 성장통일 것임을 말하며 위로를 보낸다. Jclef가 마음 가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진심이 궁금하다면 이 앨범을 추천한다.



## KISS OF LIFE

KISS OF LIFE

23.07.05

by snxo

뉴진스가 데뷔와 동시에 수많은 기록을 세우며 이른바 국민 그룹으로 등극한 후 케이팝의 판이 뒤집혔다. 하지만 뉴진스의 뒤를 이어 케이팝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그룹은 그 어떤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도 아닌 올해 7월 데뷔한 키스오브라이프이다. 데뷔 앨범을 예고한 뒤 한달도 채 지나기 전에 멤버 4인의 솔로곡들을 모두 유튜브에 공개하였고 멤버 나띠의 "Sugarcoat"가 데뷔 한달 전부터 트위터에서 큰 화제를 일으키며 그 어떤 것도 아닌 오로지 음악으로 그룹을 알리는 데에 성공했다. 이들의 특별함은 마케팅 뿐만 아니다. 저음역대의 몽환적 음색이 돋보이는 나띠에겐 Y2K풍 알앤비 곡을 주고, 르세라핌의 작곡가로 이름을 알린 벨의 솔로곡엔 본인이 작곡에 참여하게 하며 다시 한번 이들의 셀링 포인트가 음악임을 상기시킨다.



## HipHop Never Die

### KOR KASH

23.07.08

by Devi Ken

트래퍼들의 트래퍼, 코르캐쉬(KOR KASH)가 노빠꾸 바이브를 짠하게 뿐어내는 더블싱글 <HipHop Never Die>를 발매했다. 그는 작년 힙합엘리 슬라피 Freestyle에서 저스디스, 아우릴고트 등 힙합 씬 밖에서 행보를 이어가던 래퍼들을 디스했다. 최근 빈지노의 샷아웃을 받은 그는 이번 복귀작에서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량을 보여주며 코르캐쉬(KOR KASH)만의 매력을 포지셔닝했다. 타이틀곡 "HipHop Never Die"와 "300 Demo"로 구성된 이번 앨범은 트레이비(Tray B)의 피쳐링, 이안 캐쉬(Ian Ka\$h)와 헤콥(Hecop)의 프로듀싱이 눈에 띈다. 특히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을 샘플링한 "HipHop Never Die"는 중독성이 상당한 곡이다. 힙합을 돈 벌 수단, 저물어가는 것으로만 여기는 래퍼들과 리스너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코르캐쉬(KOR KASH)의 유쾌한 트랩곡을 즐겨보자.



## Get Up

NewJeans  
23.07.21

by BlackMatter

민희진과 다섯 토끼들이 돌아왔다. <OMG> 6개월 후, 데뷔 1주년 하루 전에 새 EP <Get Up>으로 컴백한 뉴진스는 넓이의 확장성 대신 장르적 깊이의 확장을 택했다. UK 개러지와 저지클럽 리듬을 차용한 FRNK의 인트로곡 "New Jeans", 저지클럽 기반의 김심야 작사의 "Super Shy", 250과 빈지노의 "ETA", UK 개러지 기반의 비트와 어우러지는 멤버들의 팔세토 보컬이 특징인 FRNK와 김심야의 "Cool With You", R&B 기반의 250의 인터루드 "Get UP", 그리고 마지막으로 250의 유로팝 기반의 "ASAP"까지. 발전한 깊이감의 뉴진스의 새 EP는 분량의 아쉬움을 남겼지만, 매니아층과 대중들 모두를 사로잡는 데는 충분했다. 파워퍼프걸과 함께한 뮤직비디오와 앨범커버 또한 눈길을 끈다. 그룹명처럼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들고오는 뉴진스. 그들의 다음 여정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04

featured

#04



#04

featured

#04

# Culture Surfin': 래퍼와 프로듀서의 차이

by WAVE

## 랩을 잘하는 래퍼 vs 앨범을 들어야 하는 래퍼

'랩은 잘하는데 앨범은 손이 안 가는 래퍼', 다들 한두 명씩 떠오르는 이름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수퍼비를 예시로 들고자 한다. 그는 호불호를 떠나, 대부분이 인정하는 테크니션이다. "5 Gawd", "Heu!" 등 히트곡도 많다. 그런데, 그의 앨범을 통째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앨범이 나오면 몇 번 들어보는 이들도 있겠지만, 듣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드러나고, 주목을 받은 몇 곡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서 잊힌다. '다른 아티스트도 마찬가지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수퍼비와 교류가 많은 창모, 그의 레이블 Yng & Rich 소속인 Uneducated Kid 같은 경우만 봐도 앨범 발매 전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일명 '최애 곡' 투표도 꾸준히 올라오는 등 전체적인 곡에 대한 평가도 준수한 편이다.

반대로 '앨범을 들어야 하는 래퍼'를 생각해 보자. 많은 아티스트가 있지만, 필자는 최엘비를 뽑고 싶다. 그의 랩은 정갈하지만,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 가끔은 너무 투박하게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앨범을 정주행한 청자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첫트랙에서 느꼈던 투박함은 곧 진정성으로 바뀌고,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앨범의 마지막 트랙을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수퍼비와 최엘비, 단순히 랩을 잘하고 못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들에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그 해답은 '프로듀싱'에 있다. '래퍼'하고 '프로듀싱'이 무슨 관계냐고? 오늘은 그 둘의 차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애당초 둘이 뭐가 다른 것이며, 위에 이야기한 현상들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

## ????: '프로듀서 = 비트메이커' 아니에요?

우선, 프로듀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선 그레이, 코드 쿤스트, 그루비룸 등 유명한 프로듀서들 덕에 단어 자체는 정착되었지만, 이들 모두 비트메이킹을 하다 보니 사람들은 프로듀서를 '비트 만드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둘은 엄밀히 말해 다른 포지션이다. 그런 의미의 프로듀서의 표본(?)이 '본토'에 존재한다. 바로 'Another One' DJ Khaled이다. 여러 매체에서 소개된 그의 작업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앨범을 만들고 싶다!
2. 비트메이커를 찾아서 비트를 만든다. (물론 비트메이커가)
3. 비트에 어울리는 아티스트를 영입한다. (근데 스케일이 전세계급인)
4. 잘 만든 노래에 자신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덕지덕지 바르고, 뮤비에도 참여한다.
5. 후반 작업을 거쳐 초호화 앨범 완성!



앨범 내에서 직접적으로 랩, 작사, 작곡 등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DJ Khaled는 도대체 뭘 한 걸까? 단순밈(Meme) 제조기 역할은 아닐 것이다. 사실 그는 이 모든 일이 성사되게 한 장본인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 당신이 비트메이커고, 이제 막 비트를 완성했다. 이 비트를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유명 아티스트가 당신의 이메일, DM에 직접 응답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서 DJ Khaled가 유명 아티스트를 섭외해 당신의 비트 위에 랩을 하거나 노래하게 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정리하자면, '곡의 컨셉부터 아티스트 섭외, 작사, 작, 편곡,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 단계까지 한 음원의 제작 과정을 감독'하는 게 프로듀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프로듀서는 음원마다 존재하며, 그와 별개로 앨범 단위에서 기획, 전체적인 곡의 감독, 나아가 뮤직비디오 제작, 음원 유통, 저작권 권리 정산까지, 음악이 리스너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루는 총괄 프로듀서(Executive Producer)란 역할도 존재한다. 물론 이런 역할 구분이 매번 칼같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획사나 조력자가 몇몇 파트를 분담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니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좋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과정 중에 프로듀서의 의도나 표현이 작품에 전적으로 반영되는 데에 있다. '어떤 것이 더 좋을까?' 하는 고민이 모여 '좋은 곡', 나아가 '좋은 앨범'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주제는 '수퍼비는 음악을 못한다'가 아니다. 수퍼비도 최엘비도 각자의 영역이 있고, 지향하는 음악적 목표도 다르다. 그리고 모든 래퍼가 꼭 최엘비처럼 음악을 만들 필요도 없다.

앨범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음악성부터 부가적인 영역까지, 할 것도 많은데 퀄리티까지 챙겨야 한다. 이 모든 영역을 홀로 완벽하게 해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은 믹싱, 홍보 등 본인이 하기 힘든 업무를 전문가와 회사에 분담하게 된다.

문제는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분담하지 않는 것'이다. 일명 'SELF-MADE'라고 부르는, 힙합의 자수성가 문화는 'HAND-MADE' 문화가 아니다. 굳이 아티스트 본인이 무리해서 직접 앨범의 총괄 프로듀싱을 맡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래퍼'는 '래퍼'일 뿐이다. K-POP 씬의 경우, 앨범의 기획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A&R이라는 포지션이 존재한다. 그걸 정답처럼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이 왜 포지션을 따로 만들 정도로 공을 들이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필자가 생각하는 '좋은 프로듀싱'이란, 쉽게 말해 '설득되는' 앨범이다. 아티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분위기나 메시지가 청자에게 왜곡 없이 전해지는 게 좋은 프로듀싱이고, 좋은 앨범인 것이다. 다들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명반 = 유기성'인데, 딱히 트랙 간에 유기성이 없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다른 매력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앨범이 될 수 있다.

힙합도 이젠 한국의 음악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장르가 되었다. 시대가 변하고 발전하는 만큼, 변하지 않는 Classic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시행착오와 함께 정교해진 프로듀싱을 통해 오늘날의 앨범 또한 언젠가는 Classic이 될 것이고, 이 또한 많은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05

zoomterview

#05



#05

zoomterview

#05

# GONGZA'S ZOOMINTERVIEW

## w/ DOUBLECROSS MUSASHI

### Intro: 자기소개 및 근황

안녕하세요, 줌터뷰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공ZA라고 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MC Son Simba입니다. 데자부 그룹 그리고 저희 팀 서리에 속해있는 한 쪽 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7월 달이 되었는데, 심바님에게 6월 달부터 줌터뷰 참여를 요청드렸었잖아요?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밀렸다가 7월이 되어서야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는데 심바님에게 6월은 어떤 달이었나요?

아무래도 상투적으로 이야기하면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런 이슈들이 제 인생에서 메인일 수는 없잖아요. 다음 작품으로 가기 위한 감정들도 많이 생겼고, 워밍 업을 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6월 이후로 제가 우선순위 떨어진 일들은 전부 정리하고, 7월부터 다음 앨범 작업을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6월은 저에게 워밍 업의 달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이슈가 많았고, 힘든 일 또한 있었지만 창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든 안 좋은 감정이든 감정이 풍부해지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단편적인 일로 제가 처음 창작을 시작했던 대학생 시기 때도, 저는 동아리에서 음악을 시작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여자에게 차이거나 헤어지거나 하면 주변에서 농담으로 '너 이제 랩 좀 들겠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감정이라고 하는 게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은 자극으로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 그대로 창작의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풍부해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 다시 요약하자면 저에게는 긍정적으로 보면 최고의 워밍업을 한 달인 것 같네요.



## 1MC 1PD? 프로듀서란 무엇인가?

본격적인 줌터뷰에 들어가기 앞서 가장 최근에 발매하신 개인작인 <DOUBLECROSS MUSASHI> 앨범 관련 질문으로 먼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전설> - <DOUBLECROSS MUSASHI>는 각기 다른 프로듀서와 1MC 1PD 형식으로 앨범을 제작하셨잖아요? 전자는 비양, 후자는 프레디 카소와 합작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앨범을 들어보면 컨셉츄얼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전설> 같은 경우에는 3인칭 시점으로 화자가 느끼는 전설에 대한 의견을 늘어놓는 듯 했고, <DOUBLECROSS MUSASHI>는 손 심바님을 앨범 속에서 하나의 캐릭터로 설정하여 그 안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 같았어요. 보통 앨범 작업을 할 때 어떤 점을 가장 고려하시고 신경 쓰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프로듀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와닿는 역할은 비트를 만든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프로듀서는 기획자거든요. <전설> 앨범은 비양과 저의 합작 앨범이었죠. 그렇다보니까 제가 비양에게 이런저런 요구도 많이 했고 여러모로 많이 헤맸지만, 음악적으로 제가 원하는 바를 디자인해주는 역할을 비양이 맡아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앨범 안의 내용과 세계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기획했어요. 이런저런 부분에서요.

하지만 <DOUBLECROSS MUSASHI>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으로 나왔어요. 보통 아티스트 분들이 크레딧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많던데 저는 크레딧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크레딧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앨범은 Executive Producer가 프레디 카소가 아니라 저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프레디 카소를 보조 프로듀서로 두어 제가 만들고자 하는 사운드를 이끌어내고자 하는데 도움을 받은 것이고, 앨범의 비트 중 상당수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작/편곡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MUSASHI CHOP THIS SHIT' 시그니처 태그가 들어간 곡들은 제가 메인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프레디 카소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 한 일이라는게 기본 전제지만 앨범 내의 역할을 조금 정확히 해두고 싶어서요. 그런데 씬에서 제 포지션을 보면 사람들에게 부정 받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앨범의 좋은 부분이 있으면 파트너가 잘 만들어서 저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내 앨범에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으면 이건 손 심바가 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와 작업했던 프로듀서들을 떠올려보면 오도마와 <밭>을 함께 만든 손건배가 저와 커리어를 제일 먼저 시작했고, 오도마의 <밭>은 프로덕션으로 평가를 받는 앨범 중 하나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음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제가 단순한 랩이 아닌 음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에는 실력 있는 프로듀서인 돈 싸인과 EP앨범과 정규 앨범을 함께 했죠. 비양, 프레디 카소 현재 다 최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우연으로 생각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프로듀서는 같이 작업 할 사람도 잘 골라야해요. 기획자니까. 또 저는 제게 어떤 재능이 있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고 평생 하고 싶은 것들은 물론 랩이지만, 만약에 그만 두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심경적 거대한 변화로 랩을 못하게 된다든지. 제가 그렇게 되면 제일 하고 싶은 건 기획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Names>부터 그 이후 모든 앨범은 제가 총괄 프로듀서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듀서 1명이랑 항상 합작으로 작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와 공동 작업을 통해서 진행한 것이고, 2018년 발표한 정규 앨범 <Names> 이후로 총괄 프로듀서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손 심바님이 총괄 프로듀서 역할을 하시면서 함께 작업하는 프로듀서에게 손 심바님이 원하는 사운드 디자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리드하신다는 거군요.**

제가 요청하는 걸 프로듀서들이 만들어주거나 혹은 <전설> 이후로는 제가 직접 비트를 만들어야지 제가 원하는 바가 100% 구현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NEO CHRISTIAN> 때도 사실 "어디로"나 "Church in the Wild" 같은 경우는 제가 주도적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비트 메이킹이라는 작업을 프로듀서로서의 역량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시작했고, 그 전부터 프로듀서로서 작업을 해왔으나 현재는 좀 더 훌륭해져 보려는 찰나에 있습니다.

### <전설>과 <DOUBLECROSS MUSASHI> 세계관의 탄생 배경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면 앨범의 세계관은 손 심바님의 주도하에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 'DOUBLECROSS MUSASHI'라는 캐릭터의 설정의 탄생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DOUBLECROSS MUSASHI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제가 창작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만들고자 하는 곡이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저말고 다른 사람이 제가 하고 있다고 느낄 때 싫어요. 다른 사람이 이미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든지, 제가 이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시 한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게 시작 됐던 명확한 계기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센스와 제이통이 2013년도에 디오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때 둘이서 공연을 하면서 돌아다닐 때 셋リスト가 올라왔는데 노래 제목들이 "구구가가", "똥", "선비". 이런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건 진짜 셋リスト만 봐도 누구 공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때 딱 느낀 거죠. 이 사람들이 뛰어난 창작자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매료된 건 이러한 독특한 감각일 수도 있겠다는 걸요.

요즘 신인 트래퍼나 드릴하는 래퍼들이 나왔다고 하면 셋リスト만 봐도 제목 다 존나 뻔하잖아요? 그냥 몇 개를 가지고 돌려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저에게 '앨범 나왔는데 한 번 들어보실래요?'라고 제안이 왔는데 제목이 다 상투적인 영어 제목으로 도배되어 있고, 어디 외국 믹스테잎 사이트를 들어가서 오늘 하루만 10개 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제목들이면 저는 안 들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흥미가 없다고 느껴져요. 단순히 지금 당장 랩 놀이에 재능이 있는 걸수도 있어요. 근데 운이 안 좋게도 랩을 잘 할 수도 있죠. 저는 그게 슬픈 재능의 불시착이라고 봐요. 하필이면 랩을 잘 해버려서 창작자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표현이 유니크하거나 특별하지도 않는데 랩을 맵는 것 자체만 괜찮아서 랩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부딪히는 시점이 오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다 똑같구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남들이 모두 날 대체할 수 있는 거구나' 불행히도 창의력은 없는 재능이 있을 뿐인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어린 동생들을 포함해서 형들도 마찬가지구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기획들이 절대로 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아까 물어보신 <전설>이나 <DOUBLECROSS MUSASHI>의 세계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설>은 정규 1집 <Names>를 내고 보석집에 합류했을 시즌에 첫번째 매너리즘을 느꼈어요. 보석집에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음악이라고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결의 음악들이 있잖아요. 자전적이고, 솔직하면서도 처절하고, 잔잔해서 아웃핏부터 간지나야 되는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감 가질만한 그런 느낌이요. 제가 처음에 보석집을 같이 했던 이유는 이 친구들이 제게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자극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QM, 테이크원, 쿤디판다, 이현준 같은 개인들이 저에게 준 조언이나 자극들은 의미가 있었을 수 있으나 단체로서의 의미는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앨범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석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비하면 다들 실력적으로 향상됐을 수는 있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창작자로서 참을 수 없던 부분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음악을 내다 보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지겹고 오히려 우리를 짊아먹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어요. 그 쯤부터 '이 사람들 별로야, 이 사람들 버려야지' 같은 생각이 아니라 내가 내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어렸을 때 이랬어, 돈이 어쨌어' 같은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차원으로 보여주자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던 게 <전설>이었어요.

아까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표현 방식 같은 게 다른 앨범들에 비해서 특별하죠.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이런 시도는 아예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가사 표현방식이나 세계를 제시한 점이 물론 사람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었을지언정 비양이랑 항상 우리는 10년, 20년 뒤에도 절대 부끄럽지 않을 만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곤 하거든요. 그게 인기가 없었고 내 팬들조차도 어려워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창작자로서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음반이에요.

<DOUBLECROSS MUSASHI> 같은 경우는 <전설>에서 이야기했고 그려냈던 세계관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쪽에 제가 빠졌던 게 네오붐뱁, 드럼리스라고 이야기하는 뉴욕 언더그라운드의 음반들이었는데 그 때는 또 제가 새로운 방식의 표현을 원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해소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세계관을 통해서 스튜디오에 앉아서 몇 날 며칠을 고쳐쓰는 거 말고, 내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냥 써내려가면 한 곡이 나오고 이런 걸 모아서 앨범으로 낼 수 있는 그런 거요. 물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제가 원했던 건 그런 방식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힙합들도 마찬가지구요. 제가 좋아하는 래퍼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스튜디오에 앉아서 뭐 피우면서, 마시면서 앉아서 그냥 작업한 게 쌓여서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앨범이 완성되더라구요. 저는 그런 즉흥성이 블루스, 재즈를 거쳐 내려온 흑인 음악의 전통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앉아서 오늘 느낌으로 만드는 그런 거요. 제가 그런 부분의 즐거움을 너무 뒷전으로 밀어두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내 방식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제가 트래퍼들처럼 맨날 대마초, 마약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기획자이자 이야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방식, 예를 들면 저는 영화를 보는 걸 무척 좋아하거든요. 쿠엔틴 타란티노의 [킬 빌]이나 이노우에 다케히코의 [베가분드]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 곡 제목 "타란티노"야, "킬 빌"이야, "우마 서먼"이야' 이런 건 싫거든요. 그럼 [킬 빌]에서 느꼈던 재미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말도 안 되는 짬뽕이 좋았어요. 왜 백인에다가 벽안을 하고 있는 여자가 이소룡의 노란 타이즈를 입고 직업은 킬러인데 총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칼로 싸우고... 심지어 이소룡과는 상관도 없는 일본도로 싸운단 말이죠? 그리고 핫토리 한조라는 난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검을 하사 받고 중국 무협지에서 나올법한 대사부한테 무술을 배워서 마지막 복수는 중국 무술로 해요. 그리고 백인인데 코드 네임은 또 '블랙 맘바'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웃기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킬 빌]이라는 영화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그대로 설명하면 '뭐야 그게... 존나 유치하잖아?'라고 느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음악으로 표현했을 때 '이거 골 때리는데 진짜 재밌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제가 만약 힙합엘리에서 어떤 주제로 싸워서 기분이 나빠요. 리스너들이 말도 안되는 걸로 저한테 지랄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거죠. 그러면 개네들은 그냥 댓글 달면 끝이지만 저는 래퍼니까 '래퍼면 랩으로 해라'라는 거에 맞서야해요. 그런데 그 때 제가 손 심바로 나가면 뭔가 진지하고 비장한 이야기를 해야될 것 같은데, DOUBLECROSS MUSASHI를 통해서는 제가 좀 더 가볍게 Bar After Bar After Bar 형식으로 말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스토리텔링 없이 그냥 막 뺄어도 되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나밖에 못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앨범을 만드는 것보다 이런 점을 기획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고, 요약하자면 DOUBLECROSS MUSASHI는 손 심바가 좀 더 가볍게, 말 그대로 좀 더 힙합의 즉흥성을 담은 캐릭터를 만들어야 했기에 나온 새로운 페르소나입니다. 텍스트만 보면 사실 어디 인기 없는 2000년대 초반의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목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적당히 거창해 보이면서 유치한 무언가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만든 것인데, 제 인생에서 손 심바라는 이름보다 잘 지은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웃음)

**저도 보면서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드셨다고 생각했어요. 이름만 보면 비장미가 돌보이지만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건 오락적이고 거침 없고 마디 사이에 유머들이 담겨 있고... 사람들이 손 심바를 떠올렸을 때 '손카콜라', '할말은 하는 래퍼' 등의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유쾌하고 유머를 담아 뺄을 수 있는 페르소나가 되게 재치 있게 느껴졌어요. 또한 <전설>에서 기획한 세계관과 이어지는 부분도 존재하구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 아티스트들이 많은 고민을 해요. 예를 들면 저는巴斯코의 엄청난 팬이었거든요. 저는 <'Guerrilla Muzik'> 시리즈를 엄청 좋아했어요. 물론 Vol. 2가 없기는 하지만 Vol. 1과 Vol. 3, <Code Name:187>도 무척 좋아했구요. 거기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고 느꼈던 게巴斯코는 그 작품 안에서 표현했던 자신의 캐릭터가 너무나 강렬했잖아요?巴斯코 A.K.A. 캘리코프... 얘기하는 것도 엄청 비장하고 게릴라처럼 군사적인 단어 선정이라든지... 그렇다보니까 그 키워드에서 벗어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빌스택스라는 새로운 자아를 만들었고 본래의 캐릭터를 허물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전례를 봐왔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심바자와디, 손 심바의 이미지의 편견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에 그걸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제 때 제대로 한 것 같아요.

## 손 심바가 Verse를 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DOUBLECROSS MUSASHI의 탄생 배경에 관해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셨고, 앞서 Bar After Bar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한 마디를 짜면 다음 마디가 쭉쭉 나오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셨는데 심바님은 랩 벌스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Verse를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여러 차원의 시각이 있어요. 어떤 차원으로 이야기해야 가장 보편적일지 몰라서 일단 제가 Verse를 구성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건 포괄적인 의미에서 '듣기 좋냐'예요. 사람들이 청각적 쾌감이라는 워딩을 많이 쓰잖아요? 그 청각적 쾌감이라는 게 영어가 훨씬 우월하고 한국어로 하면 아무래도 딸릴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정말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영어로 된 랩을 듣는 것에 훨씬 익숙하고 그런 랩이 우월하다는 어떠한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어는 한국어보다 똑같은 음절을 발음할 때 건드리는 소리도 훨씬 많아서 속도감도 더 있게 들리고 그 안에서 건드리는 어택들이 많아 랩으로 표현할 때 좀 더 풍부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로만 가사를 쓰시고 저에게도 영향을 많이 준 화지 님이 예전에 인터뷰에서 나는 바이링궐이고 영어로 표현하는 게 훨씬 편할 정도로 영어가 모국어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어로만 랩을 하는 이유는 한국어에서만 나오는 맛이 있다, 영어 랩을 평생 들으면서 자라왔지만 한국어에서만 들리는 맛이 있다, 근데 한국 래퍼들이 그런 부분을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도 이야기해주셨어요. 그걸 듣고 제가 한국어로만 된 랩을 듣고, 한국어로만 랩을 하면서 저도 공감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 얻은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영어가 훨씬 우월하고, 영어로 된 랩이 더욱 듣기 좋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선배 뮤지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듣는 라임을 한국어로 표현하는 건 영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저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형인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솔직히 그런 생각은 패배주의인 것 같다'고 했어요. 물론 친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상으로 생각하는 랩의 기준이 미국 랩인 것 이고, 영어와 한국어는 언어적으로 발생하는 소리나 들리는 감성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말로 표현했을 때 좀 더 우월한 랩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되는 거죠.

이건 좀 폭탄 발언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국 음악들이 나오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보거든요? 훌륭한 음반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올해 들으면서 느꼈던 게 한국 힙합 씬은 한국 음악으로서 완전한 암흑기에 있다는 거였어요. 언어적으로 한국어가 아니에요. 힙합은 가장 많은 음절 수를 담는 음악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정보량이 음악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촉망받는 신인이나 집단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외국어 가사들 그대로 베껴다가 열여섯마디 채우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럼 한국 음악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Roc Marciano, Griselda와 같은 뉴욕 언더그라운드 힙합에 끊히기 시작한게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인데, 들을 음악이 너무 많고 자극도 너무 많이 받아서 인생이 풍부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2015~16년도에 신인으로 이 씬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형들이 '나 요즘 한국 음악 안 들어~'라고 얘기하면 '니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늙는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겠다는 생각이 드는게 물론 음악 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한국 음악이 듣고 싶은데 한국 정서가 있는 한국 음악이 멀종해버렸어요. 다 영어로 해요. 그런 걸 보고 나서 느낀 거죠. Verse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좋게 들리는 것'이라고 했고, 그 안에서도 다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청각적으로 쾌감이 있는지에요.

거기에서 저는 솔직히 서리만큼 한국어로 랩으로 재미를 줄 수 있는 집단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만큼 중요시하는 팀도 없구요.

또 다른 시각은 뭐냐면 '청각적 쾌감'은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사람의 귀에 들리는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힙합은 항상 그걸 중요시 해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OG라고 불리는 형들이 꼰대가 아닌 척하려고 자기들은 훌륭하게 해내왔던 가치있는 것들을 무시하는 음악을 너무 옹호해줬어요. 귀로 듣기만 해도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을 통해 MC라는 게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본인들은 아직까지도 너무 훌륭하게 하고 있으면서 어디 가서 꼰대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일지 '저는 요새 외힙에서 영향 받아서 영어로만 가사 써요'라고 말하면 '그래~ 음학 아니고 음악이니까. 청각적 쾌감이 우선이지' 이딴 개소리를 존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뭘 담고자 하는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게 할지를 다 까먹고 있는데 형들은 지들은 똑바로 하면서 자기 꼰대 소리 듣기 싫어서 애들은 못하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해요. 저는 이게 존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꼰대 소리 듣기 싫지만, 영어로만 작업하는 동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니들이 듣고 영향 받았다는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굉장히 신경 쓰면서 만든다. 하지만 너희는 소리만 베끼고 있을 뿐이야. 그건 힙합이 아니야'라고요.

랩은 딱 두 개예요. 리듬과 언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 힙합은 지금 언어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팬으로서 재미가 없고 시시해졌어요. 물론 그걸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Verse를 쓸 때 '랩이 멋지게 들리는가?'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는가?'를 가장 신경 써요. 그리고 정확히 전달이 되었다면 감정적 변화를 이끌어내야죠. 그 요소들을 모두 합쳐서 '어떻게 들리는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들리는가?'를 다양한 시선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리스너 입장으로서 심바 님의 Verse를 들어보았을 때 제가 바이브 가사 창을 띄워놓고 <DOUBLECROSS MUSASHI>를 돌려보았어요. 보니까 네 마디를 기준으로 2음절 혹은 3음절로 라임을 구성하시고 쭉 밀어붙이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 모음으로 라임을 맞추셨다고 가정했을 때 '나는 이 씬 위를 걸어', '역병과 같은 존재 너넨 이 씬의 역적' 등으로 네 마디를 구성하고 다음 네 마디에서는 라임을 구성하는 모음을 바꿔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네 마디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DOUBLECROSS MUSASHI 페르소나와 어울리는 재치와 유머는 마지막 라인에 배치를 하면서 포인트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디자인을 하실 때 네 마디 단위로 스트럭처를 하신다는 단순한 의미로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서는 창작자의 시선으로 좀 더 세세한 부분을 고려해서 Verse를 구성하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굉장히 맞닿아있어요. '어떻게 들리는가?', 즉 제가 말하는 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디 단위로 끊어놓는 건 힙합은 결국 네 마디 혹은 여덟 마디 루프로 진행되고, 그렇기에 짹수 마디, 특히 네 번째 마디와 여덟 번째 마디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집중도가 달라지기에 여기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넣어야 해요. 제 주변에선 그걸 Bar Playing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변 래퍼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항상 이해하는 포인트예요. Bar Game을 제대로 하려면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마디에 어떤 이야기를 집어넣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저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네 마디 기준으로 나눠놓은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들리는가?'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 <DOUBLECROSS MUSASHI>의 표현 방식과 '서리류'

제가 신경써서 들은 건 '어떻게 들리는가?'에 포함되는 부분이었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심바 님은 본인이 이전에 했던 것을 답습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Names>나 <전설>에서 보여주었던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DOUBLECROSS MUSASHI> 같은 경우는 실소를 자아내는 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답습하기 싫다는 철학이 가사 쓰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걸까요?

그게 꼭 강박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보통 저에게 피처링 요청이 오면 70% 정도는 제가 <Names>나 이전에 보여주었던 감정을 건드리는 스토리텔링이나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시적인 표현을 해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법에 있어 너무나 오랜 시간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 때의 마음 가짐을 떠올리는 게 전혀 어렵지 않고 오히려 쉬워요. 하지만 <DOUBLECROSS MUSASHI> 같은 경우는 손 심바가 이야기하면 되게 진지해야 하고, 비장미 있고.. 그런 이미지만 가져가기에는 저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즐겁게 표현할 수 있는 페르소나가 필요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 표현의 다른 갈래인 것 같아요. 좀 더 유머 있고 즐겁게 음악을 하고 싶을 때는 '<DOUBLECROSS MUSASHI>'라는 타이틀로 음악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진지하고 시대에 던지는 메세지를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규작으로 음악을 발매하는 거죠. 전 지금까지 정규 단위의 볼륨의 앨범은 많이 발매했어도 제 이름을 건 정규 1집은 <Names> 밖에 없거든요. 손 심바의 이름을 좀 더 부각시키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겠죠? '<DOUBLECROSS MUSASHI>'를 통해 표현의 한 문을 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걸 도와준 게 서리 크루였구요. 난 이렇게 편하고 즐겁게 음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서리 크루의 음악을 만들 때처럼 내 음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DOUBLECROSS MUSASHI>'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 서리 크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손 심바님의 가사적 유머가 극대화된 버전은 디젤 님 같더라구요.

디젤이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음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서리 스타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걸 '손 심바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유머와 표현들은 '서리 스타일'인거죠.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준 건 디젤이구요. 사람들이 디젤의 표현이 유치하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저희가 창작을 하고 사는 입장인데 이게 유치하고 병신 같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점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을 안 해보고 뻔히 망할 방식으로 하는 멍청한 사람들일까요? 저희는 삶을 걸고 하는 당사자인데, 다 생각 해보고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잠깐씩 구경하는 사람들보다 생각을 안 하지는 않을건데, 버벌진트 님이 곡에서 '내가 그걸 모를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에서 공감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데 내가 너보다 신경을 안 썼겠니?' 같은 생각이 드는거죠. 그에 따른 호불호는 또 다른 얘기지만요. 그런 점에서 디젤은 형들이 무척 부러워하는 포지션에 있어요. OG 형들을 만나면 디젤에 대해 '난 디젤이 너무 부럽다, 저렇게 가사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자주해요. 이 친구는 탁월한 엉뚱함이 있고, 디젤뿐만 아니라 저희 서리 크루는 각 멤버들의 캐릭터가 다 뚜렷하게 잡혀있거든요. 예를 들면 <DOUBLECROSS MUSASHI>와 <SECOND II NONE>를 놓고 봤을 때 표현 방식이 같은 걸 공유하는 듯 하면서도 각자의 성격이 물어나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손 심바 스타일'이 아니라 그건 '서리류'인것이고, 제가 '서리류'라고 표현한 건 곧 '서리 스타일'인거죠. 제 세계관에서 제 노래 제목을 "서리 스타일"로 지으면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무술 유파 이름처럼 "서리류"라는 제목을 짓게 됐죠. 그런 스타일의 유머에 큰 영향을 준 건 디젤이구요.

**<DOUBLECROSS MUSASHI> 참여진**

디젤 님 이야기가 나온 김에 피처링 관련 질문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에는 서리에 새로 입단하신 딥플로우 님을 포함한 서리 크루의 멤버들과 도끼, 김기현 성우님이 참여하셨는데 어떤 기준에서 섭외를 하셨고 어떤 사운드를 표현하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서리 크루는 제가 생각했을 때 피처링을 맡겼을 때 가장 랩을 잘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 밖에 없죠.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래퍼들에게 제가 앨범 피처링을 맡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전 음반들에서 다른 래퍼에게 피처링 부탁들 많이 안 드렸거든요. 아마 <DOUBLECROSS MUSASHI>가 제가 만들었던 음반 중에서 피처링이 가장 많을 거예요. 피처링을 많이 맡기지 않는 이유는 제가 요구를 했을 때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제 마음에 들지 않는 Verse들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밖에 없는 거예요.

도끼 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래퍼예요. 다른 곳에서 한 번 이야기했었는데, 예전에 LA에 비와 이하고 미국 공연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때 도끼 형을 만나 봤었는데 작업을 한 번 하려다가 갑자기 마이크가 고장 나고 스튜디오가 안 되고 흐지부지하게 무산되었거든요. 이후에 "Ice Wave Remix"라는 곡에 가사를 써줄 수 있느냐고 연락을 주셔서 제 Verse를 써서 보냈는데 형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다음에 제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네오 블랙" 장르, 앞으로 있을 인터뷰에서도 일부러 이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평론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더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여튼 현존하는 장르 중에서 네오 블랙이 랩 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사운드일 거예요. 그 사운드 위에서 랩을 잘 한다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랩을 잘 하는 거라고 보면 될 정도로요. 제가 랩 잘하는 사람을 떠올려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도끼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피처링을 부탁드리게 됐죠.



김기현 성우님을 섭외하게 된 경위는 유튜브를 찾아보면 성우 분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올려두세요. 나중에 일 할 때 유튜브 채널을 보내면 내가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다는 정보가 되니까요. 60대 남성 연기 (비열한 스타일), 천진난만한 10대 소년 같은 식으로 올려 두시는데 제가 과장 없이 유튜브에 올리신 성우 님들의 포트폴리오를 웬만한 건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서치해봤을 때 절대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아우라가 안 나올 것 같은 거죠. 제가 어떤 걸 듣고 이런 스타일을 하고 싶었냐면 Griselda 앨범 중에서 Wu-Tang Clan의 Raekwon the Chef가 나와서 인트로를 시작하는 몇몇 음반들이 있어요. 그 때마다 저는 어떤 근본력을 느낀 거죠. 왜냐하면 이 스타일의 아버지는 Raekwon이거든요. 사실 인트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별다를 게 없어요. 그냥 너의 가족들을 쟁기고, 뒤통수 치는 놈들 곁에 두지 말고.. 이런 식인데 그냥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도 힘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목소리에 힘이 있는 사람을 원했어요. 시작하자마자 뭔가 이 사람한테 속아서 이 세상으로 빨려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을 찾고 찾았어요. 그러다가 저희 회사의 A&R로 일을 도와주는 DJ Kendrickx가 그럴 거면 아예 끝판왕으로 가자면서 김기현 성우님께 몇 날 며칠을 연락해서 컨택이 되었어요. 이 친구가 일을 굉장히 유능하게 해줘서 짧은 광고도 수백만원씩 받으시는 분인데, 물론 수백만원을 내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촬영도 허가해주시고 즐겁게 작업 해주셨죠. 그래서 <DOUBLECROSS MUSASHI 1>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죠.

### "서", "파", "급" 총 세 트랙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내레이션은 심바 님께서 직접 작성해주신 거죠?

그쵸. 여담으로 내레이션 내용을 보시고 '이거 대사 누가 쓴 거예요?'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썼다고 했더니 짧은 사람이 글을 잘 쓴다고 이야기해주셨어요.

물론 심바 님이 글을 잘 작성해주신 것도 있겠지만, 김기현 성우님께서도 그 내용을 앨범의 분위기에 맞게 굉장히 잘 살려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성우님이 직접 쓰신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찰떡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기현 성우님이 읽으실 걸 생각하고 썼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전설> 앨범을 작업할 때 버벌진트 님에게 피처링을 요구드렸었잖아요? 그 때 버벌진트 님이 "원숭이띠 미혼남"을 부르는 톤으로 이 후렴을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저 혼자만 생각하고 아무 말도 없이 이 트랙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걸 들어보시고 버벌진트 님이 본인이 녹음한 파일을 보내주시면서 '제가 제 마음대로 하기는 했는데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해봤어요, 마음에 안 들시면 얘기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딱 그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그럴 때 내가 제대로 만들어 보냈다는 걸 느끼죠. 저는 이걸 버벌진트 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걸 상상하고 보냈는데 그 느낌을 살려서 작업해주실 때 제 기획이 맞아들어갔구나를 알 수 있죠. 그게 앨범 만드는 재미인 것 같아요. 제가 기획한 것이 기획한 대로 이루어질 때 큰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 Title로서의 "배신자", "하늘은 비웃지 않아"

피처링 진 관련해서 이야기도 해주셨고, 앨범의 타이틀은 "배신자"와 "하늘은 비웃지 않아"로 두 곡이잖아요? 제가 들어보았을 때 "눈들속으로"가 더욱 타이틀에 적합한 트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서 말한 두 트랙을 타이틀로 정하신 이유도 있으실까요?

사실 타이틀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걸 아세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 시장에서도 리드 싱글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타이틀을 지정해서 나오는 건 우리나라의 음원사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정을 안 하고 싶은 적도 많았어요. 별 의미는 없지만 정말 가벼운 청자들은 타이틀부터 들어보거나 타이틀만 듣기 마련이거든요. 앨범 단위로 듣는 게 익숙하지 않은 라이트한 리스너들은 그렇게 듣는단 말이죠. "눈들속으로"는 앨범에서 가장 많은 장면적 연출이 삽입된 트랙이에요. 제가 상상한 장면적 연출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숲 속에 들어간 저를 노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마치 저희가 집에 들어왔을 때 도둑이 들어온 것 같으면 '나와라,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처럼요. (웃음) 그래서 '감추지 못하는 살기가 느껴지고 나는 그걸 알고 있지만 너희들의 눈들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곡에서 하죠. 그리고 나서 칼 뾰는 소리가 들리면서 곡이 한 번 바뀌죠.

곧바로 '숨어 있는 눈들이 쏟아져 내려 나에게'라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저를 린치하는 상황이 연출돼요. 이건 리스너들이 저를 항상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걸 표현하고 싶었고, 사운드가 바뀌면서 하나의 전투 장면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저희는 작업할 때 우리나라에서 좋은 걸로는 부족하다, 미국에서 들었을 때도 '와 이거 자린다'라는 반응이나올 정도의 곡만 모으자는 생각으로 하는데, 프레디 카소 형이 "눈들속으로"는 혼존하는 네오 블루스 장르 곡 중에서도 정말 잘 만든 노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눈들속으로"가 저희가 느끼기에는 Too Dope한 거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듣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연출로 다가오게 되고, 앨범에서 인상적일 수는 있으나 한 곡 골라서 들었을 때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뭐길래 <DOUBLECROSS MUSASHI>'라는 이상한 제목을 들고 나왔을까? 만화 제목도 아니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앨범을 들었을 때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는 곡이 타이틀이라면 '아 이런 거구나'라고 관심을 가지고 들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두 곡을 타이틀로 정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태 듣던 드럼 소리가 빽빽 들어간 블루스 장르의 만족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건 "배신자", 좀 더 느릿한 비트에 Gritty하고 Grimey한, 음울하고 육중한 매력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힙합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무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감성이 이 장르에서는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에게 한 번 맛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은 비웃지 않아"를 또 다른 타이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손 심바가 뽑는 <DOUBLECROSS MUSASHI>에서의 한 곡

하나는 기존의 블랙 리스너들도 이질감 없이 들을만한 트랙으로, 다른 하나는 네오 블랙의 맛은 이런 거야라고 느끼게 할 만한 트랙을 골라주셨네요. 앨범 관련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서, 심바 님께서 방금 "눈들 속으로"는 미국 네오블랙 장르의 곡들과 비교했을 때도 끊리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가 있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DOUBLECROSS MUSASHI>에서 한 곡을 고르자면 "눈들 속으로"를 골라주시나요? 아니면 다른 트랙을 뽑아주시나요?

제가 이 앨범을 만들면서 가장 고생한 곡은 따로 있어요. "일태도"라는 트랙인데 그 곡이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서 놀랐어요. 앨범 전체를 들었을 때 주변 래퍼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곡은 "일태도"였어요. 비트도 너무 좋고 랩도 참 잘했다고요. 이 비트는 제가 만들었는데, 물론 프레디 카소의 도움을 전체적으로 받았죠. 저는 프레디 카소의 도움 없이 저 혼자서 앨범 단위로 만들 능력은 아직까지 없어요. 프레디 카소가 이 장르에 있어서는 저를 도와줘야지 제가 작업에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프레디 카소가 "일태도"를 듣고는 '너 이거 안 쓸거면 내 앨범에 쓰게 비트 줘라'라고 말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잘 만든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곡의 BPM이 74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느린 블랙은 잘 못 들더라고요. 이 장르는 굉장히 Laid Back해서 속도감이 아니라 무게로 승부해야 하는 사운드들이 있어요. Griselda 가 그 부분에 참 능하구요. 그런데 한국 리스너들은 아직까진 이런 방식과 속도로 랩을하면 그냥 존나 지루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체감한 게 딱 이 BPM의 노래를 라이브 방송에서 틀고 팬들이랑 듣고 있었는데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끔 한 무더기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존나 지루한 개 쓰레기 똥 음악 듣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쓰더라고요. '이딴 걸 듣고 있으니까 너 랩이 그렇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딴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딴 방식으로 하는 거고 랩 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해요. '그 위에서 랩 잘하는 게 진짜 랩을 잘 하는 거고 우리도 알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통하는 게 무척 어렵다. 그건 알지?' 물론 저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지만 여기서 속도 좀 빠르게 한다고 먹히냐고 물는다면 저라는 사람 자체가 애초에 대중적이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걸 하고 싶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 손 심바도 저렇게 했었는데 나도 저렇게 해볼까?'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걸 하면서 전례가 없어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누군가 이 길을 먼저 걸어갔다면 그걸 보고 좀 배우고 싶은데, 랩 좀 잘한다 싶은 사람들이 느린 BPM에 랩 하면 음절을 육여넣어서 트랩처럼 랩하니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전 Westside Gunn이나 Benny The Butcher도 가끔 느린 BPM에다가 트랩 스타일 같이 랩하면 너무 열받아서 그냥 넘겨버리고 싶기도 하거든요. 나는 그거 들으려고 이 장르를 듣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죠.

## <DOUBLECROSS MUSASHI 2>???

본인이 가장 아끼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곡으로는 <일태도>를 골라주셨습니다. 아까 <DOUBLECROSS MUSASHI 1>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다음 앨범 계획에 DOUBLECROSS MUSASHI의 시리즈가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2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부제가 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 됐던 <DOUBLECROSS MUSASHI>의 후속작을 바로 작업하는 중에 있습니다.



## 첫번째 질문: 가장 최근에 들은 노래

JACKBOYS - "WHAT TO DO?"

오늘 줌터뷰의 첫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들은 노래를 소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제가 비트를 찍으려고 디깅하면서 1주일 동안 한 500여곡을 들은 것 같아요.

하지만 디깅 목적이 아니라 감상의 목적으로 들은 음악에서 말해볼게요. 스포티파이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들은 곡은 인터뷰 전에 샤워할 때 들은 JACKBOYS의 "WHAT TO DO?"네요. 제가 JACKBOYS라는 팀을 참 좋아하고, 이 팀의 앨범에서도 이 곡을 제일 좋아해요. JACKBOYS의 곡을 들으면 멜로디 위주고 싱잉인지 랩인지 싶지만 이 안에서 힙합이 느껴지거든요. 보통 한국에서는 이런 음악을 듣고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 발라드처럼 들려요. 왜냐면 내용이나 뽐내고자 하는 느낌조차 힙합이 아닌 것 같아요. 나를 과시하고 멋진 걸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멋진 사운드를 듣고 배웠으나 한국에서 돈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지라는 고민 끝에 주 소비층인 여자 팬들이 소비할만한 방향으로 곡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엔 Soft한 이야기만 하는 곡이 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존나 시시해요. 그런데 JACKBOYS는 이런 멜로디 위주여도 힙합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전 이 팀에서 Don Toliver를 제일 좋아하는데 앨범 단위로는 살짝 아쉽더라구요. 하지만 "WHAT TO DO?"라는 트랙에서만큼은 Don Toliver의 퍼포먼스가 참 좋아서 가끔 차에서도 틀게 돼요.

## 두번째 질문: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노래

Roc Marciano - <Behold A Dark Horse>

가장 최근에 들은 노래로는 샤워를 하면서 들은 JACKBOYS의 트랙을 골라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노래는 어떤 곡이었을까요?

일단 비와이가 신곡으로 발표할 노래를 의논하느라고 자꾸 보내줘서 그 곡을 제일 많이 듣기는 했는데... (웃음) 이걸 들려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오늘 인터뷰에서는 하나의 콘셉트로 밀고 나갈게요. 제가 남들이 듣는 음악 위주로 답변하면 큰 재미가 없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계속 Travis Scott이나 Kanye West 이야기는 줌터뷰를 읽으시는 분들도 웬만해서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최근에 빠져있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장르 위주로 답변을 해볼게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음반 같은 경우에는 Roc Marciano의 <Behold A Dark Horse>인데요. 첫 트랙부터 굉장히 Dope하고, 앨범에서 한 곡 소개하자면 첫 곡 "The Horse's Mouth"를 고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독 하드코어 힙합이라고 하면 특정 무드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빅딜의 발자취가 물론 대단했기 때문이겠지만, 빅딜 레코즈가 영향을 받은 Army of The Pharaohs 같은 백인 하드코어 그룹이나 이그니토로 대변되는 분위기의 음악을 보통 생각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하드코어 힙합은 말 그대로 이걸 장르로 분류하려고 봐도 힙합이라는 분류 밖에는 안 나오는 음악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 예를 들면 Mobb Deep이 있겠죠. 이 앨범은 제가 생각하는 하드코어와 한국 리스너들이 생각하는 하드코어의 어떠한 만남이 있는, 중간점에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연구하느라고 최근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Sun Gin님께서도 Roc Marciano를 네오붐뱁이라는 장르를 혼자서 끌고 온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아티스트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주시나요?**

일단 Roc Marciano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Griselda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 Griselda의 모든 멤버들이 망해도 Westside Gunn은 안 망할 거예요. 하지만 Westside Gunn이 망해도 Roc Marciano는 안 망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네오 붐뱁 그 자체예요. 네오 붐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디서 왔느냐 하면 시작 자체는 콘텐츠적으로 Raekwon의 1집 <Only Built 4 Cuban Linx…>에서 나온 마피오소 랩이라는 개념에서 따왔거든요. 본인들이 평소에 약을 팔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총싸움 이야기를 랩으로 풀어내는데 한계가 있고, 영화 <스카페이스>처럼 보다 스케일 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마피아 캐릭터를 만들 게 된 거죠. 예를 들면 Method Man은 Johnny Blaze 얼터 이고를, Ghostface Killah는 <Ironman>이라는 음반도 발표함과 동시에 Tony Stark라는 이름을, Raekwon은 Lex Diamond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 앨범에 영향을 받아 Nas나 Jay Z도 각자의 별명을 짓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DOUBLECROSS MUSASHI처럼 어떠한 캐릭터를 통해서 특정 세계관을 펼쳐나가는 것이 Wu-Tang Clan과 Raekwon에 의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샘플링을 통한 붐뱁 음악이 뉴욕에서 어느 순간 명맥이 끊겼어요. 물론 The Diplomats나 50 Cent로 명맥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뉴욕 음악이 가장 최근에 유행하던 사운드에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 오히려 종주지 다움을 잃어버리게 된거죠. 그건 뉴욕 아티스트들이 유행하는 음악으로 랩하고 있을 뿐이지 뉴욕 자체의 음악이 아닌거잖아요? 그런데 그 뉴욕 음악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고 지금처럼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든 사람이 Roc Mariano예요. Westside Gunn이나 Griselda를 포함하여 Joey Bada\$\$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Jay Z 같은 경우에도 언더그라운드를 디깅 할때 Roc Marciano가 어떤 아티스트와 작업하는지 유심히 본다고 하더라구요. 뉴욕 언더그라운드 씬의 이름 없는 왕인거죠. 네오 붐뱁의 정수를 이해하려면 Griselda 보다도 Roc Marciano의 앨범들을 무조건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오 붐뱁이라는 장르가 좋다면 이 사람으로 시작해서 끝나니까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번째 질문: 나만 알고 있는 노래**

**Kool G Rap - "Fast Life (Norfside Remix)"**

**Roc Marciano를 저물어 가는 뉴욕 언더그라운드의 음악을 다시금 부흥시킨 아티스트로 소개해주시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음악으로는 그의 음반인 <Behold A Dark Horse>를 골라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심바 님의 나만 알고 있는 노래를 소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Kool G Rap의 "Fast Life"라는 유명한 트랙이 있어요. 이 곡의 Norfside Remix 버전이 있는데, 원곡보다 이 버전을 훨씬 좋아하고 음악 만들 때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2017년 쯤 카피 랩도 열심히 했었구요. 원곡은 조금 팝스러운데, 이 곡은 훨씬 뉴욕의 느낌이 담겨있어요. <4, 5, 6> 앨범에 실려있지는 않고 프로듀서 Salaam Remi가 따로 리믹스를 한 곡입니다. Nas가 신인으로 나타났을 때 레이블 관계자들이 모두 Nas를 원했었는데, 한 가지 흠을 굳이 꼽자면 그가 너무 Kool G Rap과 유사했다는 점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Kool G Rap이 Nas의 랩적 멘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둘의 콜라보가 역사적이죠. Nas가 Kool G Rap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너무 궁금하기에 가끔 Kool G Rap의 노래를 자주 찾아 들었습니다. 물론 Kool G Rap은 지금도 라디오 팟 캐스트에 나오면 OG로 대접을 받지만, 대중적인 인기는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 했으니 그런 부분이 아쉽죠.

## 네번째 질문: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

Mobb Deep - "Eye for an Eye"

"Fast Life (Norfside Remix)"를 통해 Kool G Rap과 Nas를 비교분석해서 말씀해주셨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인데요. 심바 님은 라이브를 직접 진행하시는 분인데, 관객으로서의 라이브도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제가 팬보이를 자처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국내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 '저 공연은 직접 돈과 시간을 써서라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별로 라기보다는 제가 저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마음의 병 같은 거죠. 저는 저보다 남이 잘 하는 걸 보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온전히 즐기는 마음으로 관람하지 못하는 거구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에피소드와 함께 드리자면 제가 처음으로 랩으로 돈을 벌어서 정산금이 나왔을 때 그 돈으로 뭘 할까 생각하다가 뉴욕에 한 달쯤의 여행을 갔어요.

그 당시 여행 날짜와 안 맞아서 못 본 공연이 있었는데, 뉴욕에 블루노트 레코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재즈 레이블이 있어요. 음악이 너무 좋은데 앨범 커버가 조금 푸르스름하다 싶으면 블루노트에서 나온 재즈 앨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대단한 레이블이죠. 뉴욕에 블루노트 레코즈에서 운영하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Mobb Deep이 <The Infamous> 앨범을 라이브셋으로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가 제 여행 이랑 이틀 정도 차이가 나서 공연을 못 보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몇 달 후에 Prodigy가 세상을 떠났죠.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귀국 날짜를 조정해서라도 그 공연을 보고 왔어야 됐는데.. 물론 그 때는 그만한 돈이 없기는 했지만요. 가슴에 사무치는 아쉬움으로 남아 있고, 그런 의미를 담아 제가 <The Infamous>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트랙인 "Eye for an Eye"를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로 골라보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트에 제일 좋아하는 래퍼들이 랩을 했어요.

아까 Mobb Deep은 심바 님이 생각하시는 하드코어 힙합 장르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라고 언급해주셨는데, Mobb Deep이 풍기는 하드코어적인 요소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하드코어 힙합은 어떤 미학이나 관념에 가까워요. 비슷한 개념으로 치면 언더그라운드가 있겠죠. 언더그라운드 음악이라고 해서 어떠한 사운드적 특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보통 하드코어라고 하면 과격한 표현이 드러나거나 장르 자체가 해당 앨범의 콘텐츠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제 기준에서 하드코어 힙합의 전형이나 정수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는 Mobb Deep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백인 하드코어 힙합 그룹에서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들이 하드코어 힙합을 대표하는 래퍼들로 알려져 있다보니 특정한 무드와 스타일을 떠올리는것 같은데, 빅딜 레코즈 소속이었던 딥플로우 형도 Mobb Deep을 좋아해서 본인을 하드코어 MC라고 자주 소개하곤 했어요. <전설>은 익스페리멘탈한 무언가가 있지만 저는 <DOUBLECROSS MUSASHI> 같이 제가 최근에 만들고 있는 음반들도 하드코어 힙합이라고 생각해요.

## <The Infamous>는 "Shook Ones, Pt. II"를 비롯한 여러 명곡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Eye for an Eye"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통 제가 단체곡을 작업할 때 항상 참고하는 곡이에요. 왜냐면 이 곡에서 Havoc, Prodigy 다음으로 Nas, Raekwon이 나오는데 물론 Nas의 파트에서 매료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Raekwon Verse에서 다른 세계로 빨려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보통 사람들이 단체곡에서 도입부 반마디를 비우고 '따다 다다다다' 하면서 전 주자보다 많은 음절로 빠르게 들어가면 찢었다! 하면서 좋아하지만, 저는 그런 방식이 좀스럽다고 느끼거든요. Raekwon처럼 본인의 파트가 나왔을 때 이전에 나온 랩들은 다 까먹고 그 사람 파트만 생각나는 랩을 단체곡에서 항상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체곡을 작업할 때는 제 분위기로 끌고 가는 Verse를 선보이는 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큰 가르침을 준 곡이기 때문에 고르게 된 것 같아요.

## 최근에는 어떤 단체곡에서 이러한 느낌이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단체곡 작업 중에서는 JJK의 "시쳇말"에서 앞서 언급한 제 분위기로 끌고 가는 듯한 Verse를 잘 뺐었다고 생각해요.

## 조금 촌스러운 질문 일수도 있겠지만 Mobb Deep은 듀오 힙합 아티스트잖아요? 듀오 단골 질문은 둘 중 어떤 아티스트가 더 좋은지인데, Havoc과 Prodigy 중에서는 어떤 멤버가 심바 님에게 좀 더 끌리시나요?

MC로서는 Prodigy가 좀 더 스타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형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병도 앓고 있었고, 그것 자체로 강한 캐릭터가 있었던 분이니까요. 물론 지병으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음식을 잘못 먹고 질식사하셔서 참 안타까웠지만 아이코닉한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Mobb Deep의 음악을 계속 들어보면 Havoc 특유의 프로덕션에 더 감탄하게 돼요.. Havoc이 무슨 이론을 알고 이런 분위기를 표현한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자기 감각 하나만으로만 만든 거예요. 이 앨범이 95년도에 나왔는데, 93년에 나온 RZA의 프로덕션이 담긴 <Enter The Wu-Tang>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 앨범은 같은 시대인데도 드럼이나 베이스가 훨씬 완성이 되어 있고 말이 안 되는 기술들이 들어간 압도적인 음악력을 자랑하는 작품이에요. 만약에 그 앨범이 뉴욕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뉴욕의 힙합은 훨씬 빨리 끝장 났을거라고 확신 할 정도로요.

그런데 Havoc은 이와는 다르게 자기가 느끼는 퀸스 브릿지의 살벌함을 감각 하나만으로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되게 Raw해요. 한 프로듀서가 Havoc과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만들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드럼이고 샘플이고 음이 다 나가고 하나도 맞는 게 없고, 믹스나 밸런스도 이론적으로 말이 안되는 모양새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내가 하나라도 바로잡으려고 고치는 순간 이 음반은 다 망가진다고 느꼈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느낌을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프로듀서는 이걸 힙합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인터뷰를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Mobb Deep에서 MC로서는 Prodigy가 조금 더 멋졌지만, 아티스트로서는 Havoc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또, 가사에서는 Havoc이 Prodigy보다 돋보이지 않았을 수 있으나 랩에 있어서는 '이거 진짜 개쩐다'라고 느낄 때 Havoc의 파트인 경우가 꽤 많았어요. Havoc이 진짜 음악을 잘하거든요.. 하지만 간지는 Prodigy가 한 수 위기는 하죠.

## 다섯번째 질문: 여행과 관련된 노래

### Nas - "The Genesis"

한 명은 간지, 한 명은 음악적인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Mobb Deep이라는 팀의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라이브로 듣고 싶으신 노래는 뉴욕에서 일정으로 인해 보지 못 했던 <The Infamous> 라이브 쇼를 소개해주시면서, 해당 앨범의 수록곡을 골라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여행과 관련된 노래인데요, 심바 님은 여행 가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좋아하기는 하는데 자주 못 가죠. 시간 내서 여행 다닐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게 되면 항상 즐기는 편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디를 간다는 생각을 자주 안 하는 편인데 만약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예전에 동남아를 갔을 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여자친구와 한번 가고싶어요. 라오스에 갔을 때 느꼈던 새로운 환경들이 특히 좋았어요. 제가 더위를 정말 많이 타고 괴로워하는 편인데도 라오스 자체가 볼거리나 먹을거리도 많고, 입고 있는 옷 자체에 물이 들어가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환경들이 좋은 경험으로 남아있어요. 그런 이국적인 느낌들이 최근에는 조금 그리워서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스리랑카 같은 더운 곳으로 가고 싶네요.

뉴욕에 한 달 동안 갔었던 건 재미를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비싼 옷 한 두 벌 사면 없어지는 금액이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힙합으로 돈을 벌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뉴욕에서 시작된 음악을 듣고 제 음악을 시작했는데, 기회가 있는데도 힙합이 시작된 뉴욕을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게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래서 계획한 '뉴욕 단기 연수'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반들을 그 곳에서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뉴욕 도착한다는 알림이 나올 때 <Illmatic>을 딱 틀었죠. 그 때 창밖으로 보이는 안개낀 뉴욕의 전경과 함께 "The Genesis"가 제 귀에 깔렸어요.

만약에 여행 갈 때 즐기려고 듣는 음악을 고르라고 했다면 저도 드스의 "여름 안에서"나 Charlie Puth의 'Voicenotes' 같이 시원하고 팝한 음악을 소개하겠지만, 그 때 당시의 기억이 정말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Street's disciple, my raps are trifle'로 시작하는 "Live At The Barbecue" 벌스가 인트로에서 스킷과 함께 나오면서 첫 비트가 들어오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죠. 아.. 이게 뉴욕이구나! 호화롭게 놀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이 궁금해서 온 거니까.. 뉴욕에서는 인도인지 중동인지 모르겠지만 그 쪽 지역의 사람의 반지하 방을 에어비엔비로 빌려서, 할인마트인 타겟에 가서 뉴욕 사람들이 먹는 걸 사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물론 치안이 문제이다 보니까 밤에는 밖에 잘 못 나가고 그랬지만 되게 의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이 곳의 공기가 대체 어떻길래, 이 사람들이 대체 이 곳에서 무엇을 느꼈길래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음악들을 만들었나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랩적으로 성장했다고 느꼈던 시기가 몇 번 있는데, 실제로 뉴욕 여행이 그중 하나였어요. 2017년에 <Elijah's Demo>라는 EP를 한 달만에 돈 싸인과 함께 만든 적이 있는데, 뉴욕에서 여행을 하더라도 그 곳에서 한 곡은 만들어 오자는 생각으로 "Slay Me"라는 트랙을 그 곳에서 작업해왔어요. 뉴욕에서 음반이나 비트를 듣고 거리를 걷다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었죠. 당시에 주변에서 이 곡을 듣고 랩이 한 단계 성장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래도 느끼는 게 크면 표현도 그렇고 생각도 바뀌면서 변화를 겪는 것 같아요. 그런 변화를 겪었던 게 뉴욕 다녀와서였던 것 같아요. 다녀오길 잘 했다고 생각했죠.

## 여섯번째 질문: 취미와 관련된 노래

### 서리 - "Dry Finish"

안 그래도 인터뷰 초입에 여러 경험을 통해 창작자가 많은 걸 얻어간다고 하셨잖아요. 하물며 한 달 동안 뉴욕을 여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감을 받았을까요. "The Genesis"를 뉴욕 행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들은 것이 강렬한 여행의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말씀해주시면서 여행에 관련된 노래로 골라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취미와 관련된 노래인데요. 심바 님의 취미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 취미라고 하면 최근에는 작업 때문에 잘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월드 오브 웍크래프트 최상위 유저거든요. 제가 하는 클래스에 있어서는 상위 0.2% 쯤 돼요. 한국에서는 한 25위 정도? 이 게임이 시즌제라서 저번 시즌에는 그 등수로 마무리를 했죠.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일을 해야 돼서 자체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평소에 와우를 하면서 음악을 듣지는 않지만 한 번 만든 기억이 있어요. 제가 레이드를 하던 도중에 쿤디판다가 비트를 보내면서 '형! 이거 후렴 좀 짜 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답장을 보내고 레이드가 보통 두 세 시간 정도 걸리는데 절반쯤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상하게 비트를 틀어놓고 하니까 흥얼흥얼 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성이 된 게 이번 서리 앨범의 "Dry Finish"의 후렴입니다. 레이드하면서 30분 정도만에 만든 것 같아요. (웃음)

개인적으로 보통 이런 탑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래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더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구요. 비트를 듣고 나서 곧바로 떠오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음악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다 싶을 때 작업하는 노래를 듣고 떠오르는 새롭고 캐치한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게임을 할 때 음성 녹음으로 흥얼거린 가이드 버전이 있는데, 이걸 들어보시면 제 허밍 소리에 키보드 소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딜을 하면서 디스코드로 공대장이 이야기하는 오더를 들으면서 만들었어요. 키보드를 와다다 누르면서 공대장이 '이쪽으로 빠지세요~'하는 소리가 다 들어가 있더라구요. (웃음) 그런 다음 쿤디판다에게 보내주었더니 '게임 하는 거 아니였어?'라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해봤다고 이야기하니까 좋다고 내일 바로 녹음하자고 해서 "Dry Finish"의 후렴이 완성되었죠. 레이드 상황에서의 위기와 함께 탄생한 곡이고, 기억에 남는 재밌는 에피소드라서 취미와 관련된 노래로 골라보았습니다.



일곱번째 질문: 과거/현재/미래를 대표하는 노래

과거) Raekwon - "Guillotine"

현재) Westside Gunn - "Dunks"

미래) Conway The Machine - "Brucifix"

줌터뷰를 보시는 서리 팬 분들에게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노래인데요. 세 가지 테마 모두 골라주셨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힙합의 역사를 기준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보다 제가 현재 영향받고 있는 음반을 위주로 소개하려고 해요. 네오붐뱁 관련해서는 먼저 이전 답변에서 게임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게임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디아블로 2는 정말 오래된 게임이지만 그 게임이 좋아서 아직까지도 유튜브로 관련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남아있어요. 아무도 안 하겠지?라는 생각에도 저를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은 디아블로 2를 아직도 하고 있었는데, 이 게임이 갑자기 리마스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게 되고, 저는 옛날 게임을 하는 올드유저에서 갑자기 개떡상한 기분이 되는 거죠. 잘 되고 못 되고 를 떠나서 제가 좋아하는 걸 사람들이 다시 즐길 기회가 생긴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음악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디아블로 2 같이 오래도록 제가 좋아한 음반은 Wu-Tang Clan이나 Mobb Deep의 음악이었어요. 아직도 Mobb Deep을 듣고 있는 걸 주변 사람들이 보면 '넌 진짜 Mobb Deep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좋아했죠. 그 정신을 잊는 후계음악이 지금 시대의 네오 붐뱁인거구요.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를 대표하는 음악부터 소개해보자면 Raekwon의 "Guillotine"이에요.

이 곡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앨범의 인상을 저에게 가장 강렬하게 남기고, 가장 Wu-Tang 스러우면서 Griity / Grimey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네오 붐뱁의 무드에 많은 영향을 남긴 곡이에요. 정말 뉴욕스럽고, Wu-Tang스러우면서 동시에 Raekwon스럽죠. 앨범에 Ghostface Killah도 상당 부분 참여했는데, Ghost & Rae는 슈퍼슈퍼 팀이지만 더 오래 살아남고 음악가로 뛰어난 건 Ghostface Killah 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안정적으로 좋은 음반을 발매하니까요. 하지만 가장 높은 산을 쌓아올리고 음악가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 건 Raekwon인 것 같아요. 모두가 그의 스타일을 따라할 수 밖에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Jay Z는 "A Star is Born"이라는 곡에서 'Purple tape'이라는 별칭으로 이 앨범의 영향력을 회상 하기도 했어요.



현재를 대표하는 노래로 넘어가자면 Westside Gunn의 "Dunks"라는 곡이 있어요. 정규 1집의 인트로 트랙이죠. 이 곡은 지금 네오 블랙 장르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탠다드로 들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마디를 기준으로 5초 정도 되는 엄청 짧은 샘플을 적은 변화로 루핑해서 만든 음악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샘플링 그냥 날먹이네?'라는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 순간을 캐치해서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게 샘플링과 이 장르의 맛이에요. 네오 블랙은 Kanye West의 5집처럼 만들면 안 되는 장르예요. 그런 맥시멀리즘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미니멀한 구성이 매력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샘플과 드럼 브레이크 정도로만 만들어졌고, 그게 Griselda의 스타일이 물이 오를대로 올랐을 때 나온 프로덕션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제가 Westside Gunn의 음악을 들게 되었을 때는 Griselda의 컴필레이션 앨범인 <WWCD> 앨범을 통해서였어요. 그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때는 사실 큰 흥미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힙합엘리에서 네오 블랙이라는 장르를 다루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올린 큐레이팅 글을 보니 Griselda가 보여주는 음악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장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Flygod>이라는 앨범까지 돌아가서 들어보는데, '와 이거 그 쪽 맞네'라는 생각이 들었던거죠. 왜냐면 <WWCD>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Griselda에게서 딱 한 번밖에 나올수없는 스타일이에요.

그 때 당시에 Shady Records에서 앨범을 발표했는데, 보통 Shady Records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써는 랩 팀이여도 팝하고 병신 같은 음악이 나온 전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Slaughter House는 믹스테잎 <House Rules>를 제외하면 발매한 음반들이 다 별로였구요. 앨범에 Skylar Gray가 피쳐링으로 들어간 트랙이 있으면 바로 꺼버리고 싶고... 그런 인식이 생길 정도로 이 랩 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왜 이렇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Griselda는 그런 부분들을 다 땡깡하고 하드코어하게 만들었지만 샘플링 그 자체인 이 장르에서 샘플이 거의 하나도 없이 네오 블랙을 구현한 게 <WWCD>예요.

이 앨범의 임팩트가 있다보니 사람들이 꼭 Griselda의 타입 비트를 만들면 이 앨범처럼 만들거든요. 하지만 그건 굉장히 훌륭하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이벤트지 그들의 정수는 아니에요. 정리하자면 Westside Gunn은 제가 좋아하는 음반의 후계자라는 정보를 누군가에게 큐레이팅을 받아 다시 팔짱 끼고서 듣게 되었는데, 너무 좋아서 그 때부터 빠지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저도 지루했어요. 비트도 대단한 것 같기도 않고 이상하다고 생각했구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언더그라운드에서 발표한 음반들을 듣고서는 매료될 수 밖에 없었죠.

그리고 <WWCD>가 대단한 시도인 것은 맞지만, 그게 계속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타입 비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고 흉내내기도 어렵지 않았기에 그 다음에 같은 스타일의 앨범이 또 나오면 사람들이 지겨워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Who Made The Sunshine> 같은 경우에는 앨범이 그냥 그랬어요. 그 음반이 사운드적으로 <WWCD>의 후속작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unks"와 <Flygod>이 현재 네오 블랙의 표준이라는 느낌을 주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대표하는 노래는 제가 이 장르의 미래가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골라보았는데요. Conway The Machine의 최근 작품에 "Brucifix"라는 곡이 있어요. 보통 Blood 갱들이 C로 시작하는 단어를 B로 바꾸듯, Conway The Machine은 버팔로 출신이라서 'Crucifix'라는 단어의 앞글자를 B로 바꿔서 표현한 거죠. 이 곡을 전체적으로 뜯어보면, 샘플 구간 하나로만 만든 곡이에요. 아마 믹스도 5분 이내로 끝났을 거예요. 극한의 미니멀리즘이는데, 샘플에 묻어있는 심벌 소리와 브라스 사운드에서 나오는 야마를 가지고 곡 하나를 끌고 가요. 샘플링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건 하나의 긴 샘플을 넣고 자신의 감각대로 MPC버튼을 누른 거예요. 저도 샘플링을 하는 입장으로써 추구하는 바가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애정은 작업하는 곡의 루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깔이죠. 제가 전업 프로듀서가 아니다 보니까 만듦새가 좋은 음악들은 제가 만들기는 어렵겠죠. 프레디 카소나 비앙보다 훨씬 더 잘 만든 비트를 제작할 수 있느냐고 물는다면 당연히 아니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 장르에 있어서는 더 훌륭한 루프를 뽑아낼 수 있어야한다는 게 제 일종의 목표예요. 이 곡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났고, 이건 이 장르에 평생을 바치지 않았다면 못 뽑는 야마예요.

보통 두 마디짜리 루프를 잇거나 A와 B를 이어 붙여서, 혹은 ABABAC와 같은 구성으로 루프를 제작하는데, 이건 긴 샘플 하나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누르고, 변주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극한의 미니멀리즘이에요. 이 비트를 만든 사람은 Griselda의 인하우스 프로듀서이자 Griselda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Daringer인데, 저는 The Alchemist가 이 장르에서 모든 걸 흡수해서 끝내버렸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Daringer가 수준 높은 디깅과 감각으로 Next Shit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더 대단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엔 제가 미래에 이런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같은 방식의 비트를 만들려다가 실패했어요. (웃음) Daringer의 비트도 물론 대단하지만, 이 비트를 음악으로 만들어주는 건 Conway The Machine의 랩이에요. 랩으로 완성되는 장르기 때문에 더욱 멋있고, 제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쿤디판다가 어떤 분이 쓴 글을 공유를 했어요. 어렸을 때 중국집에서 요리를 배웠는데 돈 10~20 만원 정도만 받고 숙식 해결하면서 맞아가면서 배우던 시절이 있었대요. 물론 그 때의 복지는 엉망이었고 모두에게 잔혹한 시절이었지만 그 때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제대로 배웠고, 별 도구가 없이 도마 하나와 재료만 있으면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수타하시는 분들은 허리를 얼마나 혹사시켜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디스크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으신대요. 그런 점을 알고서도 수타면을 뽑아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기계가 면을 뽑아주고, 더욱 좋은 가공된 재료들이 있지만 그 때만큼의 열정을 쏟기는 어렵다는 거죠. 또, 칼 하나만 쥐고 요리를 만드는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구요. 그 사람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물론 시대는 변했지만 당신들의 가혹함에서 난 잘 배우고 갑니다라는 멘트를 보는데 감동이 있었어요.

최근의 음악 씬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음악을 하는데 사람들이 야마 있다며 빨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라임도 안 맞추고 박자 다 나가는데 캐릭터가 재밌으니까... 물론 사람들이 왜 좋아하고 소비하는지 이해는 돼요. 제가 소비하지 말라고 말 할 입장도 아니구요. 보통 그런 분들은 트랩 비트 위에서 랩을 하는데, 그런 음악을 들으면 사람들이 '맛있다'는 표현을 주로 하곤 해요. 차마 자기들도 잘 한다는 이야기는 못 하겠고 재밌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인터넷 BJ들을 대하듯 소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새로운 시대의 소비 방식이라면 막고 싶지 않고 막을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이걸 위해서 기술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들과 한데에 분류되는 순간 뭔가 얹을하다는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래퍼들은 제가 좋아하는 이 비트에서 랩을 절대 못 없어요. 왜냐면 이 사운드는 갈고 닦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만 표현할 수 있는 장르예요. 쪽밥들은 오면 바로 털리는 비트기 때문에 대중적일 수도 없어요. 살아남기 가장 힘들고 가혹한 환경이 바로 이 장르예요. 그래서 이 장르가 너무 좋구요. 말 그대로 '기예'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예가 없고 느낌이나 캐릭터만으로 어필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절대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좋아요.

#### 마지막 질문: 인생 곡 혹은 인생 앨범

인생 곡) Roc Marciano - "Richard Gear"

인생 앨범) Conway The Machine - <Reject 2>

**네오 블랙 장르에서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노래들을 골라주셨고 오늘의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바 님의 인생 곡 혹은 인생 앨범으로는 어떤 노래를 골라주셨을까요?**

참 어렵네요. 물론 제 올타임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무조건 [Illmatic]이 나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너무 재미가 없겠죠.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가 현재 꽂힌 장르를 중심으로 답해보자면 인생 곡은 Roc Marciano의 "Richard Gear"예요. 제가 생각하는 현존하는 네오 블랙 장르에서 가장 멋진 곡이에요. "Brucifix"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Roc Marciano는 Daringer가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이미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곡을 프로듀싱한 건 Roc Marciano 본인인데, 사실 저는 Roc Marciano가 프로듀서로서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랩을 너무 잘하지만, 한 장르를 이끌고 발전시킨 건 위대한거니까요.

이 곡은 클래식이고, 어느 시대에 가져다 놔도 가치 있을 음악이에요. 'God bless my soul I'm a sinner'로 시작하는 가사도 너무 멋있고, 이 노래로 공연하면 앞서 말한 가사를 사람들이 전부 떠올리게 해요. 이 트랙의 구성 요소 전부가 모두 완벽해요. 네오 블랙 장르를 하고 싶은데 이 곡을 이해 못하면 그냥 때려치면 될 정도예요. 그건 한국인인데 '난 이순신 장군 잘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데?' 이런 답을 하면 바보같이 보이는 것 처럼요. 대한민국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훌륭함을 느껴야 할 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할 곡이 "Richard Gear"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오 블랙의 정수 그 자체예요. 이 곡을 잘 모르겠다면 다른 장르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장르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굳이 노력해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생 앨범이라고 느끼는 작품은 Conway The Machine의 <Reject 2>입니다. 흠 없는 작품이에요. 앨범에서 한 곡을 고른다면 "Sky Joint"예요. 앨범 커버를 보시면 어깨하고 목에 있는 게 총 자국이고, Conway가 이 앨범의 이름을 'Reject 2'라고 지은 이유는 이전에 <The Devil's Reject>라는 믹스테잎을 발매했었어요. 물론 그건 퀄리티도 상대적으로 별로고, 주목도도 낮았어요. 'The Devil's Reject'라는 표현은 Conway가 총에 맞아서 지옥에 갈 뻔 했는데, 그것을 악마가 본인을 거절했다고 표현한 타이틀이에요. 그런데 그 앨범의 후속작을 자기만 듣는 것도 아닌데, 앞의 'The Devil's'는 생략하고 <Reject 2>라는 이름으로 발매했어요. 사람들이 분명히 <Reject>라는 작품을 찾아볼 거거든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매한 게 '뭐 어쩔거야? 내가 이렇게 내겠다는데'라는 막무가내 Gang Shit이 느껴져서 좋아요.

Griselda의 스타일은 제가 생각했을 때 2015년에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같은 시기에 발매됐던 작품으로는 Westside Gunn의 <Hitler Wears Hermes 2>가 있구요. 이 당시의 프로듀서였던 Daringer도 조금씩 물이 올랐고, 슬슬 Griselda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프로덕션, 사운드, 콘텐츠적으로 Griselda가 완성된 앨범이자 최고점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앨범이 발매되었을 때까지는 아직 거리에서 약 파는 걸 병행하고 있었던 영향일거예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이 때만의 말도 안 되는 거친 맛이 있고, 믹스도 사실 들어보면 엉망이거든요. 하지만 이 총 자국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듯한 감성을 주는 거죠. 한없이 Grimey하고 사랑하는 멋진 음반이라서 제가 음반을 만들 때 이 앨범을 들었을 때처럼 깔끔한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이 장르를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수를 담고 있고, 실제로 저도 많이 들었던 음반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장르에서만큼은 인생 앨범으로 Conway The Machine의 <Reject 2>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 Outro: 인터뷰 참여 소감

**인생 곡과 앨범을 골라주시면서 오늘의 인터뷰가 모두 마무리 되었는데요. 심바 님 줌터뷰에 직접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너무 재밌었고, Sun Gin이나 NAVY EGO 같이 저와 인연이 있는 아티스트들도 줌터뷰에 참여했더라고요. Sun Gin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익명으로 제 얘기도 많이 했구요. (웃음) 그런 부분들이 재밌어서 봤는데, 리스너들도 분명히 이 콘텐츠에 재미를 느끼고 많이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인터뷰를 이렇게 재미있어하는데, 솔직히 리스너들도 샤워하면서 자기가 래퍼라고 생각하고 인터뷰하는 상상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한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기발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런 중요한 수요의 유일한 공급인거죠. 리스너들에게도 인터뷰를 경험시켜주는 재밌는 기획인 것 같고, 역으로 제가 창작자의 입장에서 참여를 해보니까 또 색다른 맛이 있었어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재밌는 에피소드를 포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잔뜩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만족하는 시간이셨다니 제 입장에서도 뿌듯하네요. 특히 네오 블랙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하나의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줌터뷰에 참여해주신 Son Simba 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음 HOM 매거진에서는 KING SOUTH G님과 Ghvstclub님의 줌터뷰가, w/HOM 매거진에서는 우키팝 님의 인터뷰가 연재됩니다.**

#ad3a41



#353551

#625f7c

#151a3b

<DOUBLECROSS MUSASHI>의 앨범 커버는 필자가 2023년 현재까지 공개된 앨범 커버들 중 탑 5 안에 꼽는 앨범커버다. 정면에 위치해 있는 손 심바, 그 뒤 담뱃대를 문 프레디 카소와 양측의 쿤디판다(좌)와 디젤(우), 뒤를 돌아보는 오하이오래빗과 서로를 마주하는 도끼(좌)와 딥플로우(우). 앨범의 참여진이 일본 만화의 그림체로 그려진 앨범 커버는 앨범에 존재하는 진중한 분위기와 무도의 컨셉, 그리고 그 안에 녹아든 장난스런 가사들을 청각적 경험에서 시각적 경험으로 녹아낸다. 또한, 낮은 채도의 푸른 색감과 대비되는 불드한 붉은색의 텍스트 또한 만화적인 요소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 LECRITIC

by HIPHOPLE 예림

## Beenzino NOWITZKI



### USER SCORE

# 87.9

Based on 86 ratings  
July Ratings: #1

### INFO

**Release Date:** 2023. 07. 03

**Length:** 58:03 / 63:30

**Tracks:** 18

**Record Label:** BANA

### TOP TRACKS

- 여행 Again (46.5%)
- 990 (41.9%)
- Sandman (36%)
- Radio (34.9%)
- 침대에서/막걸리 (31.4%)

[SIGN IN TO HIPHOPLE TO RATE AND REVIEW](#)

< 이전

다음: 저금통 >

# E SENS 저금통



## USER SCORE

# 86.0

Based on 86 ratings

July Ratings: #2

## INFO

**Release Date:** 2023. 07. 13

**Length:** 38:09

**Tracks:** 14

**Record Label:** munn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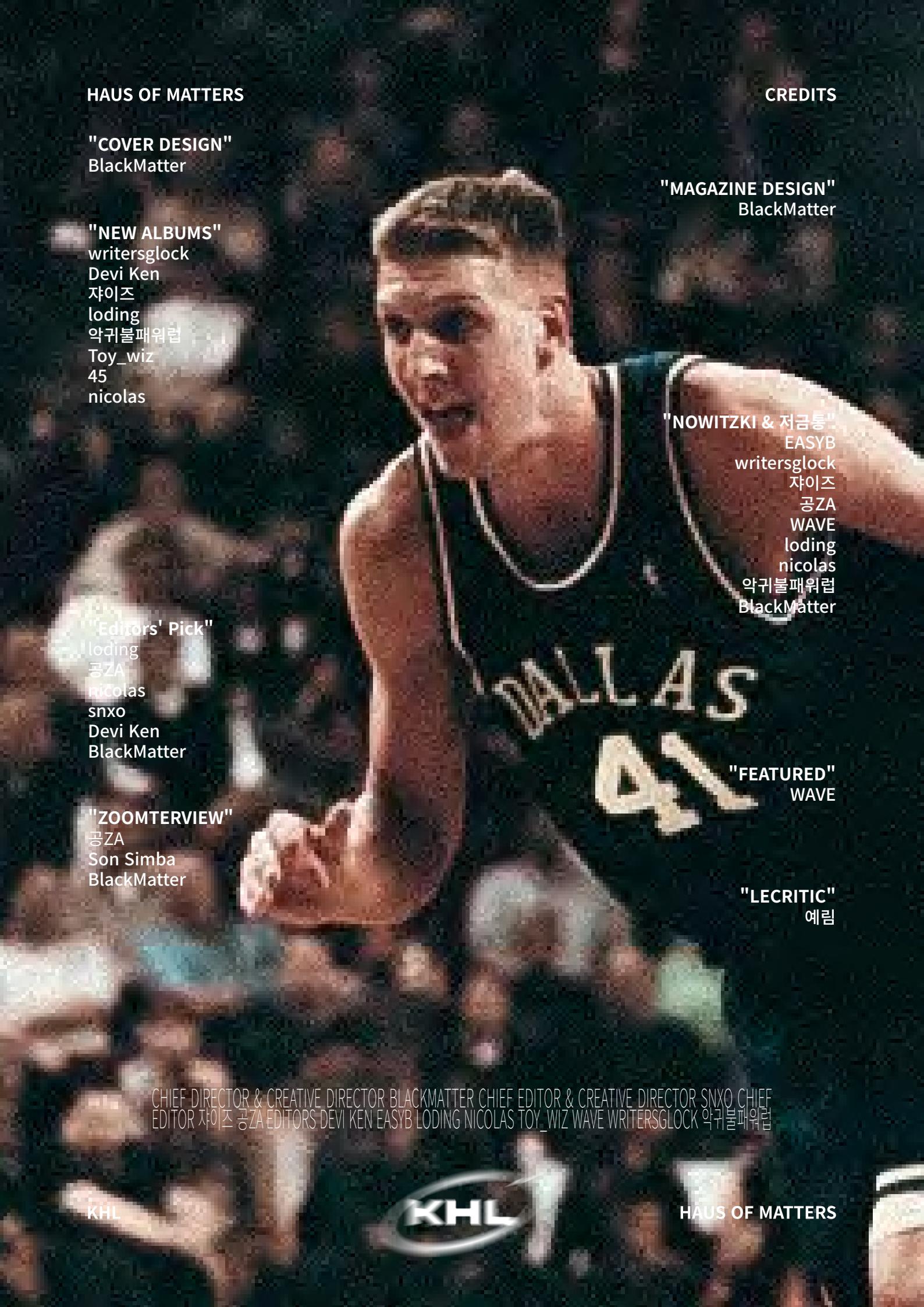
## TOP TRACKS

1. What The Hell (81.8%)
2. No Boss (65.2%)
3. A Yo (60.6%)
4. Gas (42.4%)
5. Piggy Bank (36.4%)

[SIGN IN TO HIPHOPLE TO RATE AND REVIEW](#)

< 이전

다음: 킅 >



HAUS OF MATTERS

CREDITS

"COVER DESIGN"

BlackMatter

"NEW ALBUMS"

writersglock

Devi Ken

자이즈

loding

악귀불파워쉽

Toy\_wiz

45

nicolas

"Editors' Pick"

loding

공ZA

nicolas

snxo

Devi Ken

BlackMatter

"ZOOMTERVIEW"

공ZA

Son Simba

BlackMatter

"MAGAZINE DESIGN"

BlackMatter

"NOWITZKI & 저금통"

EASYB

writersglock

자이즈

공ZA

WAVE

loding

nicolas

악귀불파워쉽

BlackMatter

"FEATURED"

WAVE

"LECRITIC"

예림

CHIEF DIRECTOR & CREATIVE DIRECTOR BLACKMATTER CHIEF EDITOR & CREATIVE DIRECTOR SNXO CHIEF  
EDITOR 자이즈 공ZA EDITORS DEVI KEN EASYB LODING NICOLAS TOY\_WIZ WAVE WRITERSGLOCK 악귀불파워쉽

KHL

KHL

HAUS OF MATTERS

hausofmatters



...



13  
게시물

75  
팔로워

17  
팔로잉

## HIPHOPLE USER MAGAZINE "KHL"

잡지

HAUS OF MATTERS KHL KILL THEM ALL

번역 보기

[linktr.ee/khlofficial](https://linktr.ee/khlofficial)

The Instagram feed shows a variety of content, including:

- Top row: A person in a white hoodie, a group of four women, and a person wearing a patterned sweater.
- Middle row: A woman in a blue dress, a man with a red bandana, and a group of people at a table.
- Bottom row: A person with a mask, a close-up of a hand holding a cigarette, and a person in a doorway.

Each thumbnail has a caption in Korean:

- Top left: 에이셉 라끼, '스캇 너 니와' 시전?
- Top middle: 뉴진스의 <Get Up>, 피치포크서 7.6점 받다
- Top right: 노엘, 정규 3집 <TRIPONOEL> 발매 예고
- Middle left: 미초키, 새 앨범 발매 예고
- Middle middle: 우지의 <Barter 16>, 총괄은 런던 온 더 트랙?
- Middle right: 팝스타인 내가 이세계에선 와플가게 알바?

Bottom left: A thumbnail with a small 'DRAFT' watermark.

Bottom center: A thumbnail showing a hand holding a cigarette.

Bottom right: A thumbnail showing a person in a doorway.

Bottom navigation icons: Home, Search, Create, and Direct Messages.

### HAUS OF MATTERS 인스타그램 개설

힙합, 케이팝, 그 외 다양한 음악 관련  
카드 뉴스 업로드

인스타그램 익스클루시브 컨텐츠  
업로드

매거진 스포일러 글들과 편집장의  
소소한 작업기들까지

[https://www.instagram.com/  
hausofmatters/](https://www.instagram.com/hausofmatters/)

# Lyrics In Translation

The screenshot shows a Genius profile for 'KHL'. At the top, it says 'HAUS OF MATTERS'. Below that is a circular profile picture of KHL. To the right of the picture, the handle '@KHL\_official' is followed by a yellow box containing the number '2.258'. Below the handle is the text '○ Contributor'. In the bottom left corner of the profile area, there is a dark bar with white text that reads 'KHL', 'HAUS OF MATTERS', and 'L.I.T. (Lyrics In Translation)'. In the bottom right corner of the same bar, there is a small purple arrow pointing to the right.

**KHL Genius 계정 오픈**

Genius 한국어 번역본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번역 계정을 개설하였습니다.

The Weeknd의 <Dawn FM>을 시작으로 다양한 앨범들의 전곡 해석들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genius.com/KHL\\_official](https://genius.com/KHL_official)

**"HAUS OF MATTERS KHL KILL THEM ALL"**



Contacts  
@hausofmatters  
khlhomofficial@gmail.com